

문화 서예

2024 12 VOL. 214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개관페스티벌
형형색색
2024.
11.15. - 11.13.
이제는 잊지 마세요
문화는 일상
인생하는 행복

문화서예



《공산품 미학》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대부분인, 대량 생산 방식으로 제조되는 공산품을 조명하는 전시가 DDP뮤지엄 돌레길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는 공산품을 생산 당시의 산업 소재와 기술, 그리고 소비문화를 집약한 결과이자 당대 생활문화와 디자인사를 드러내는 주요한 자료로 본다. 출품된 500여 개 공산품은 대부분 유명 디자이너 혹은 건축가가 디자인한 제품으로, 생활 소품부터 가구류까지 디자인 아이콘이 즐비하다.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정물이자 사용성과 심미성을 추구한 공산품을 통해 사물 내면의 숨은 의미를 탐구할 기회.

2025년 3월 3일까지 | DDP뮤지엄 3층 돌레길갤러리 | 02.2153.0000



1



2024
12. 6. - 12. 7.
노원아트극장
금 19:00 / 토 14:00, 17:00

동화발레 <백조의 호수>
고전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를 어린이의 정서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동화발레 <백조의 호수>가 연말을 맞아 노원아트극장으로 찾아온다. 기획공연으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동화적 상상력을 극대화한 무대 디자인, 정교한 의상, 화려한 조명 등이 마법처럼 펼쳐져 몰입을 더할 예정이다.

12월 6일과 7일 | 노원아트극장
02.2289.3451

2

자료 제공 김성민(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서리풀 청년작가 특별전 <신선한 조각을 호흡하십시오>
예술의전당과 서초구청·서초문화재단이 합심해 선보이는 '서리풀 청년작가 특별전'이 3회를 맞이한다. 올해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공모 전시 참여 작가 중 조각에 관한 새로운 접근과 실험이 돋보인 청년 예술가 11명의 작품 6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 관람 포인트는 시각적 형상인 '조각'이 후각적 감각인 '향'과 만나 하나의 공간 안에서 교감해서 이뤄내는 입체적인 경험이다. 작가와 작품의 특성에 맞춰 조향된 열한 가지 향도 만끽해볼 것.

12월 8일까지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1668.1352

5

구현은 <회전하는 풍들의 저야> 2023, 열화백채 330×290×200cm



3

서울시뮤지컬단 <맥베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동명의 창작뮤지컬이 초연 1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재창작의 귀재 김은성 작가와 감각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박천휘 작곡가가 합심해 완성한 서울시뮤지컬단의 작품이 재공연되는 것. 성공적인 초연을 토대로 연출·안무·영상에 변화를 기미해 더욱 입체적인 작품으로 거듭났다. 배우 한일경과 허도영이 맥베스 역을 맡고, 유미·이연경이 맥베디(레이디 맥베스)로 출연한다.

12월 12일부터 29일까지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02.399.1000



<삶의 씨줄>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란문화재단이 재단의 날줄과 같은 워커힌미술관의 섬유예술 전시를 재해석한 전시를 마련했다. 워커힌미술관은 <현대 섬유예술전>(1984), <현대 타피스트리전>(1993·1995·1997), <한국 섬유미술의 새지평>(1996)을 개최해 당시 국내 섬유예술 작가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구심점으로써 한국 섬유예술의 전성기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섬유예술 전시에 참여한 김이평·성옥희·송번수·신영옥·유정혜·이미화·차순실의 1990년대 태피스트리 및 직조 작품 14점과 2000년 이후 섬유예술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김민선·김태연·문보리·이현화·차승연의 작품 19점을 성수동 우란문화재단에서 만날 수 있다.

2025년 1월 17일까지 | 우란문화재단 우란경 | 02.465.1418

6

SPACON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2024. 12. 28 SAT PM7:00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울예술단 송년갈라 <SPACon>
한 해를 마무리하며 관객과 함께하는 특별한 콘서트.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서울예술단 주요 작품의 넘버를 만날 수 있는 갈라 콘서트가 열린다. 창단 작품 <새봄>과 2009년 초연한 <바람의 나라> 등 주목할 만한 과거의 특별한 무대를 시작으로, 대표 인기 레퍼토리인 <운동주, 달을 쏘다>, <잃어버린 얼굴 1895>, <신과 함께-저승편>, <나빌레라>, <곤짜이, 이상>, <금란방>, 그리고 최근 화제를 모은 <순신>, <천 개의 파랑>까지. 올 연말, 관객이 사랑하는 다양한 작품의 넘버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풍성한 시간이 될 것이다.

12월 28일 오후 7시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02.523.0986

노들원터페스타
노들섬 내 곳곳에 신타의 선물공장이 차려진다. 연말연시 화려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노들섬을 찾아가보자. 테마 라운지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며, 예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된다. 12월 21일과 22일, 24일과 25일에는 디저트와 오브제를 중심으로 꾸린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좋은 날 빠질 수 없는 공연이 함께할 예정이다. 어린이와 가족 또는 연인을 위한 재미난 클래스도 준비된다. '신타의 노들 공장'은 11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19일까지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노들섬 누리집(nodeul.org)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노들원터페스타
2024년 11월 22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노들섬

8

서부의 아가씨
- LA FANCHULLA DEL WES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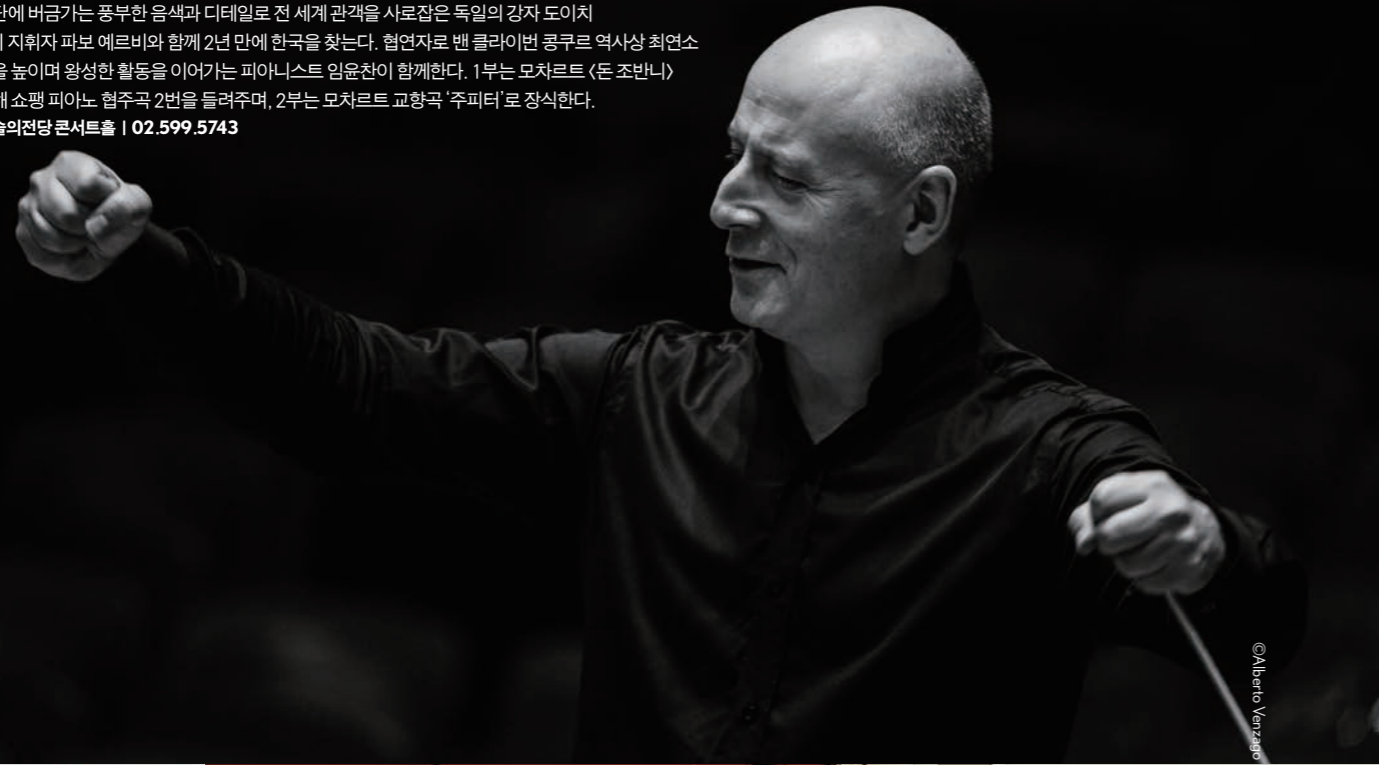
2024. 12. 5. 6. 7. 8.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서부의 아가씨>
푸치니 서거 100주년, 국립오페라단은 올해 마지막 작품으로 <서부의 아가씨>를 무대에 올린다.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로맨틱 오페라는 <라 보엠>이나 <나비부인>, <투란도트>에 비해 덜 알려졌으나, 극과 음악의 긴밀한 유기성이 돋보이는 푸치니의 숨은 진주 같은 작품.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낭만적 특성과 재즈·민속음악으로 현대적 어법을 모두 갖췄다. 홍석원이 지휘봉을 잡고, 2018년 <코지 판 투테로>로 한국에서 데뷔한 니콜라 베를로파가 연출을 맡았다. 소프라노 임세경·김은희, 테너 박성규·한윤석, 바리톤 양준모·황인수 등이 출연한다.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1588.2514

파보 에르비&도이치 캄머필하모닉

대편성 관현악단에 버금가는 풍부한 음색과 디테일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은 독일의 강자 도이치 캄머필하모닉이 지휘자 파보 에르비와 함께 2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협연자로 베클라이브 공쿠르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로 이름을 높이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함께한다. 1부는 모차르트 <돈 조반니> 서곡으로 시작해 소팡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주며, 2부는 모차르트 교향곡 '주피터'로 장식한다. 12월 18일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02.599.5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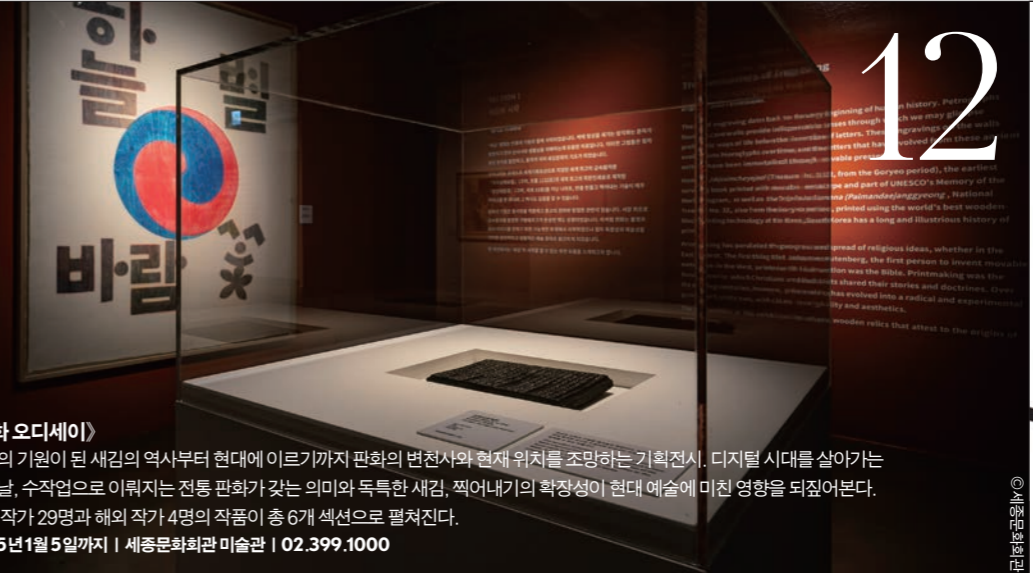


©Alberto Venza

9

《판화 오디세이》

판화의 기원이 된 새김의 역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판화의 변천사와 현재 위치를 조망하는 기획전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전통 판화가 갖는 의미와 독특한 새김, 찍어내기의 확장성이 현대 예술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본다. 국내 작가 29명과 해외 작가 4명의 작품이 총 6개 섹션으로 펼쳐진다. 2025년 1월 5일까지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 02.399.1000



©세종문화회관 | ©서형서



국립극장 <몬스터 콜스> 영국 최고의 아동 문학상으로 인정받는 카네기 메달 수상작 '몬스터 콜스'를 원작으로 한 연극이 막을 올린다.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목소리와 신체 표현을 중심으로 이야기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나무 위의 군대> 등 작품에서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감각적인 연출로 정평이 난 민새롬이 연출을 맡고, <은의 혀>, <견고덕걸>로 최근 연극계에서 주목받는 박지선이 각색을 담당했다.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02.2280.4114

서울함공원에서 만나는 테디베어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전시관

크리스마스를 한 달가량 앞두고 망원한강공원 내 서울함공원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들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사랑받아온 인형 테디베어로 장식된 대형 트리, 3.4미터 커다란 곰 인형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색 포토존부터 직접 테디베어를 만들어 트리를 장식해보는 특별 체험,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캐럴 공연과 산타 할아버지께 듣는 동화 속 흥미진진한 이야기까지. 한강에서 미리 크리스마스를 만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전시는 2025년 2월 23일까지.



13



12.1 조성현×함경 듀오 리사이틀

쿼드저울클래식 <조성현×함경 듀오 리사이틀> K-클래식을 이끄는 두 목관 리더, 플루티스트 조성현과 오보이스트 함경이 들려주는 바흐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쾰른 필하모닉에서 수석을 역임하고, 또 현재 핀란드방송교향악단에서 수석으로 활약하는 두 사람이 바로크 음악으로 합을 맞추는 것. 이 겨울, 두 대의 목관악기가 들려주는 호흡을 오묘이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12월 1일 | 대학로극장 쿼드 | 1577.0369

10



《투명하고 향기 나는 천사의 날개 빛깔처럼》 비누를 재료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조각가 신미경의 전시가 펼쳐진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종교적 표상으로 미술사의 여러 명화에 등장했고 문학적 상상을 통해서도 신성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표현되는 '천사'를 주제로 삼았다. 이로써 작가가 30여 년간 재료로 사용해온 비누의 물질적 속성이 갖는 투명성과 이를 극대화하는 빛, 그리고 향기를 매개로 존재와 부재 사이를 오가는 천사의 상징성을 공감각적으로 제시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신작 100여 점을 제작했다. 2025년 5월 5일까지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 02.2124.8800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개관페스티벌 'OVERTURE' 지난 11월 22일 성대하게 문을 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가 오는 12월 7일까지 축하 행사를 이어간다. 개관페스티벌 'OVERTURE'에서는 다양한 음악을 다채로운 방법으로 마주하기를 제안하며, 우리에게 '음악적인 삶'을 제안한다. 12월에는 앙상블 시리즈Ⅳ <Tutti>(6일), 앙상블 시리즈Ⅴ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세상의 모든 바로크 음악>(7일), 메이커스 워크숍Ⅲ <Music Makers: 우리의 앙상블>(5일), 서울예술교육랩 서초Ⅱ <동물의 사육제, 시와 몸으로 쿵쾅>(7일), 바로크 첼리스트 이현정의 강연 <악기의 시작>(6일), 샬롱(4일과 7일), 개관 기념 포럼 <음악, 오늘의 스펙트럼>(5일) 등이 이어진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예매 후 참여 가능하며,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네이버 예약)를 이용하면 된다.

15

클래식다방 갈라콘서트 '클래식 음악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다'라는 의미를 담아 서리풀 악기거리(서초음악문화지구)와 서리풀 음악축제거리에 있는 소공연장에서 주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더욱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클래식다방'.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릴레이 공연을 진행했고, 참여 팀 가운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앙상블 라퐁텐·파이페 퀸텟·앙상블 프레기에라·러쉬라이프 뉴유리언즈 밴드가 올해 마지막 갈라콘서트를 준비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12월 13일 오후 7시 |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 070.4045.2940



16



17

뮤지컬 갈라 콘서트 <Winter's Melody>
 영등포문화재단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뮤지컬배우 신영숙·카이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Winter's Melody>를 개최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레베카>, <맘미미아>, <모차르트>, <미세스 다웃파이어> 등 여러 작품에서 섬세한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해온 뮤지컬배우 신영숙, <지킬 앤 하이드>, <프랑켄슈타인>, <엑스칼리버> 등 라이선스 작품부터 창작뮤지컬까지 폭넓게 참여하며 많은 관객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뮤지컬배우 카이와 12인조 오케스트라가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영등포문화재단 누리집(ydpc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2월 24일 오후 7시 30분 | 영등포아트홀 02.2629.2231**



18

국립무용단 <향연>
 2015년 초연 이래 4년 연속 다섯 차례에 걸친 공연에서 매진을 기록한 국립무용단의 대표 흥행작 <향연>이 6년 만에 돌아온다. 격조 높은 우리 춤의 정수를 다시금 선보일 예정. 한국춤을 4저절의 테마로 담아내고 소품 형식의 전통 무용 레퍼토리 12편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배치했다. 정구호 연출이 맡은 무대는 전통적인 오방색을 해체해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한국적인 미감을 화려하게 증폭시켜 보여준다.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02.2280.4114**



19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엔 발레! 매년 겨울이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전령사,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찾아온다. 화려하고 즐거운 왈츠, 아름답고 수준 높은 춤이 어우러지는 대향연. 공연이 끝난 뒤 관객과 함께 부르는 캐럴까지. 한 해를 보내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간에 함께해보는 건 어떨까.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02.399.1000**

20

SCENE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20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

- 10 **보다**
한눈에 보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
- 12 **살피다**
나의 이야기가 무대가 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 13 **살피다**
음악, 그 이상의 경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 14 **만나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개관식 현장

- 28 **예술가의 진심**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의 악보밖 세계
- 34 **예술인 아카이브**
허겸
- 36 **예술인 아카이브**
이지혜
- 38 **페이퍼로그-연말 특집**
서울문화재단 출근록 대탐구 다만 패션에 진심인
- 42 **인사이드**
마주 본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것 서울희곡상 수상자 이수민

- 46 **인사이드**
문화예술 일거리 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예술로 자브로'

- 48 **트렌드**
여성 지휘자는 아직, 여성 작곡가의 작품이라도

COLUMN

- 52 **스크린 너머의 세상**
삶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 54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이강소 화백의 바람이 물을 스칠 때

- 56 **삶의 책장을 넘기며**
뒤죽박죽 서울 사무리

- 58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무엇이 아름다운가

- 60 **동시대적 고전 읽기**
한껏 낭비해야 달게 되는 세계

-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FOCUS



COVER STORY
서울어린이취타대
 전통예술에 기반을 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의 마스코트, 50명 어린이 단원으로 구성된 서울어린이취타대가 개관식 현장에 등장했다. 오와 열을 맞춰 위풍당당한 행진을 시작한 이들의 힘찬 걸음에 함께해주시기를.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4년 12월 2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육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A photograph of a music stand in a concert hall. The stand holds a sheet of music titled "JOH. BRAHMS TRIOS FÜR KLAVIER, VIOLINE UND VIOLONCELLO". The publisher is "G. HENLE VERLAG MÜNCHEN". The background shows rows of empty red seats in a dimly lit hall.

우리의 '예술적'인 일상을 위하여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

오직 당신의 예술적 경험을
위한 두 곳의 신규 공간이
11월 말 개관 소식을 알렸다.
강북 센터는 '나의 이야기가
무대가 되는' 모두의 공간으로,
서초 센터는 삶 가까이에서
'음악, 그 이상의 경험'을 위해.
두 공간에서 펼쳐질 활동에
기대가 모인다.

한눈에 보는 서울문화 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

서울시 5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중 두 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양천·용산에
이어 새롭게 시민과 만날
강북·서초 센터의 면면을 빠르게
살펴본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개관

2024년 11월 21일

위치

서울 동북권

강북구 숭례로48길 14

운영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월요일 휴무

*운영 시간 변동 가능

특화장르

전통예술·연극·뮤지컬

가치 목표

우리나라의 예술적 뿌리를 바탕으로 시대적 상징과

서사에 현대적인 변화를 아우르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다움', '관계', '함께

어우러짐'의 가치 공유

문의

02.2105.2314

주요 공간

4층

강연과 세미나를 위한 대강의실

3층

소리 기반 예술교육이 이뤄지는 '소리창작실',

움직임 기반 예술교육 펼쳐지는 '움직임창작실',

시각예술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소강의실

2층

공연·강연·워크숍 등을 위한 다목적 스튜디오

'예술당술샘'

1층

어린이와 가족 모두를 위한 상설 프로그램이 열리는

'예술도담'

지하 1층

다양한 예술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연습실 '예술지음'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개관

2024년 11월 22일

위치

서울 강남권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6

운영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시간 변동 가능

특화장르

음악

가치 목표

기능 중심의 음악교육을 넘어서 '음악,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이 지닌 가치를 다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

문의

02.3399.0777

주요 공간

5층

241석 객석과 그랜드 피아노를 갖춘 음악 전용 공연장

'서울체임버홀'

4층

대규모 연습과 포럼·세미나 등 운영이 가능한

'뮤직스튜디오', 전문 연주자의 공개 수업과 소규모

연주를 위한 '마스터클래스실', 강연이 이뤄지는

'프로그램실' (1개실), 3인 이상의 합주와 음감회가

열리는 '양상블실 3'

3층

3인 이상의 합주와 음감회가 열리는 '양상블실 1·2',

개인과 소규모 인원의 합주연습이 가능한 '연습실 1~13'

2층

강연이 이뤄지는 '프로그램실' (3개실)

1층

음악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 '더 라운지'



나의 이야기가 무대가 되는 서울문화 예술교육센터 강북

어린이는 극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어르신은 모여 앉아
관소리 한 자락에 내 이야기를
엮어보는 곳. 머무를수록
풍요로워지는 공간, 강북 센터가
꿈꾸는 공간의 가치를 나뉜다.

지난 11월 21일 많은 이들의 기다림 끝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이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공사를 마치고 문을 활짝 열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은 서울시 5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중 하나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서남권, 2016년 개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도심권, 2020년 개관)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동북권 거점 예술교육센터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동남권)가 강북 센터에 이어 11월 22일 문을 열었으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서북권)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문화재단은 향후 총 5개로 이뤄진 권역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시대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전역을 아우르는 권역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더 깊은 예술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은 영유아부터 장·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을 포함하며, ‘일상 가까이’는 예술로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깊이 관계 맺는 예술에 대한 발견을 뜻한다. 더불어 ‘더 깊은 예술 경험’은 예술에 관한 이해에서 나아가 예술 체험을 통한 삶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킴을 말한다. 특히, 전통예술·연극·뮤지컬 등 공연예술을 특화 장르로 설정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은 현장, 서사, 만남, 관계, 함께 어우러짐 등 예술 안에서만 가능한 감각적 사유에 기반한 예술의 동시대적 가치를 나누는 공간이 될 것이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은 공간의 규모와 구성 면에서 시민의 예술 체험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췄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4,725.36m² 공간으로, 연습실 ‘예술지움’(지하 1층),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상설 체험 공간 ‘예술도담’(1층), 무대 조명과 음향시설 등을 갖춰 발표와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스튜디오 ‘예술당술샘’(2층), 움직임·소리·시각 등 감각 영역별 공연 창작 체험이 가능한 움직임창작실과 소리창작실(2~3층), 강의실(3~4층)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이 자리한

강북구는 북한산 자락에 자리잡아 대지의 60퍼센트 이상이 공원 녹지 지역으로, 산악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분포하는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를 모은다. 강북구 인구 통계를 보면 서울시 전체 연령대별 인구 대비 장·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지역의 환경적 맥락을 기반으로 장·노년층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으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이 지역민에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주요한 사회적 어젠다agenda이기도 한 ‘생태환경과의 관계성’, ‘고령화 시대 세대 간 통합’을 주요 키워드로 미래 지향적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포지셔닝하고자 한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의 시즌 콘텐츠는 ‘나의 이야기가 무대가 되는 My Life on Stage’이라는 기치 아래 장·노년층과 어린이·가족 등을 대상으로 예술을 쉽고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공연·강연·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 창작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함께 만들고, 어린이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예술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북권 기초문화재단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예술교육 공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공간을 대관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개관 이전부터 크고 작은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에서는 어린이들이 센터 전 공간을 누비며 전통극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고 부대끼며 접촉하는 그 순간의 예술을 체험하고 있다. 오랜 삶의 이야기를 품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관소리 한 자락에 각자의 소중한 이야기를 엮어 소리를 내보기도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에 드나들고 머무르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음악, 그 이상의 경험 서울문화 예술교육센터 서초

음악에 관심 있는 시민부터
취향이 뚜렷한 애호가까지,
음악의 가치를 다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 서초
센터가 그리는 미래를 들어본다.

11월 22일, 서초구 반포동에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서초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서울시의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계획에 따라 동남권을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조성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는 음악에 특화된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순수예술에 대한 접근성과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주체 간 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선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문화재단은 그간 예술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권역별 예술교육센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 밀착형 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학교 안에서 이뤄지던 예술교육을 모든 시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진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시민의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가 위치한 서초구 일대는 예술 활동 인구와 음악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띠고 있어 센터 공간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30여 개의 공연 시설과 연습 시설, 악기 제작 및 판매 시설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서초음악문화지구·서리풀악기거리 등 음악 관련 인프라 또한 풍부하다. 서초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악기 수업을 지원하는 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 중이기도 하며, 음악적 취향을 갖춘 중장년층의 문화예술 수요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센터의 장르 특화 공간 운영에 잘 접목해 동남권역으로 확산해나간다면 시민과 예술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 본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는 ‘음악, 그 이상의 경험 The Experience Beyond Music’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능 중심의 음악교육을 넘어 음악이 지니는 가치를 다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심자부터 애호가, 전문 예술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음악 장르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구체적인 경험은 없으나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한 지식과 취향을 가진 애호가 등 수요에 맞춰 콘텐츠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는 가장 고전적인 음악부터 경계를 확장하는 음악까지, 듣는 음악에서 읽고, 보고, 만드는 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를 갖췄다. 클래식 음악에 특화된 241석 규모의 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채임버홀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뮤직스튜디오, 중규모 이상의 앙상블 합주가 가능한 마스터클래스실과 앙상블실, 소규모 연습이 이뤄지는 연습실 등 음악 활동에 최적화된 전용 시설을 갖췄다.

또한 전문 연주자가 선호하는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비롯해 총 15대의 피아노를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 공연장용 그랜드피아노는 자동연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연주 외에도 음악 감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1층 공간 곳곳에는 9채널의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을 구비해 공간을 방문한 시민이 음악에 푹 빠져들 수 있도록 했다.

센터 전체 공간 구성에는 콘셉트를 부여했다. 1층 INSPIRATION ZONE은 음악으로 시민을 맞이하는 공간이자 음악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라운지와 카페가 자리잡고 있다. 3층과 4층의 CONNECT ZONE은 음악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교육과 협업의 공간으로, 뮤직스튜디오·마스터클래스실·앙상블실·연습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층 DIVE ZONE은 음악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관객을 기다린다.

시민의 일상 속 친근한 예술 향유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는 알찬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우선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대표 프로그램인 서울시민예술학교를 통해 ‘모두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곳’을 모토로 단계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는 음악 장르에 특화된 센터로서, 입문자를 위한 예술 교양 프로그램부터 애호가를 위한 예술 체험, 마스터 과정에 이르는 향유 단계별 다양한 음악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또한 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장르 특화 공간으로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음악 전문 공간을 활용한 양질의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해 음악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지난 개관 페스티벌에서 임윤찬의 스승인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이 서울시 영재지원을 받은 젊은 연주자를 대상으로 공개 수업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뛰어난 아티스트에게 음악을 직접 배울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를 시민 공개 프로그램으로 선보여, 연주자는 물론 청중에게도 특별한 배움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추후 동남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써 지역 기관과 관계망을 형성해 다방면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동남권 자치구 문화재단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역 내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가 써내려갈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줄 시민과 예술가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설렘을 안고 긴 여정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본다.



강북 센터 공간 곳곳은 상상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색감과 오브제의 가구로 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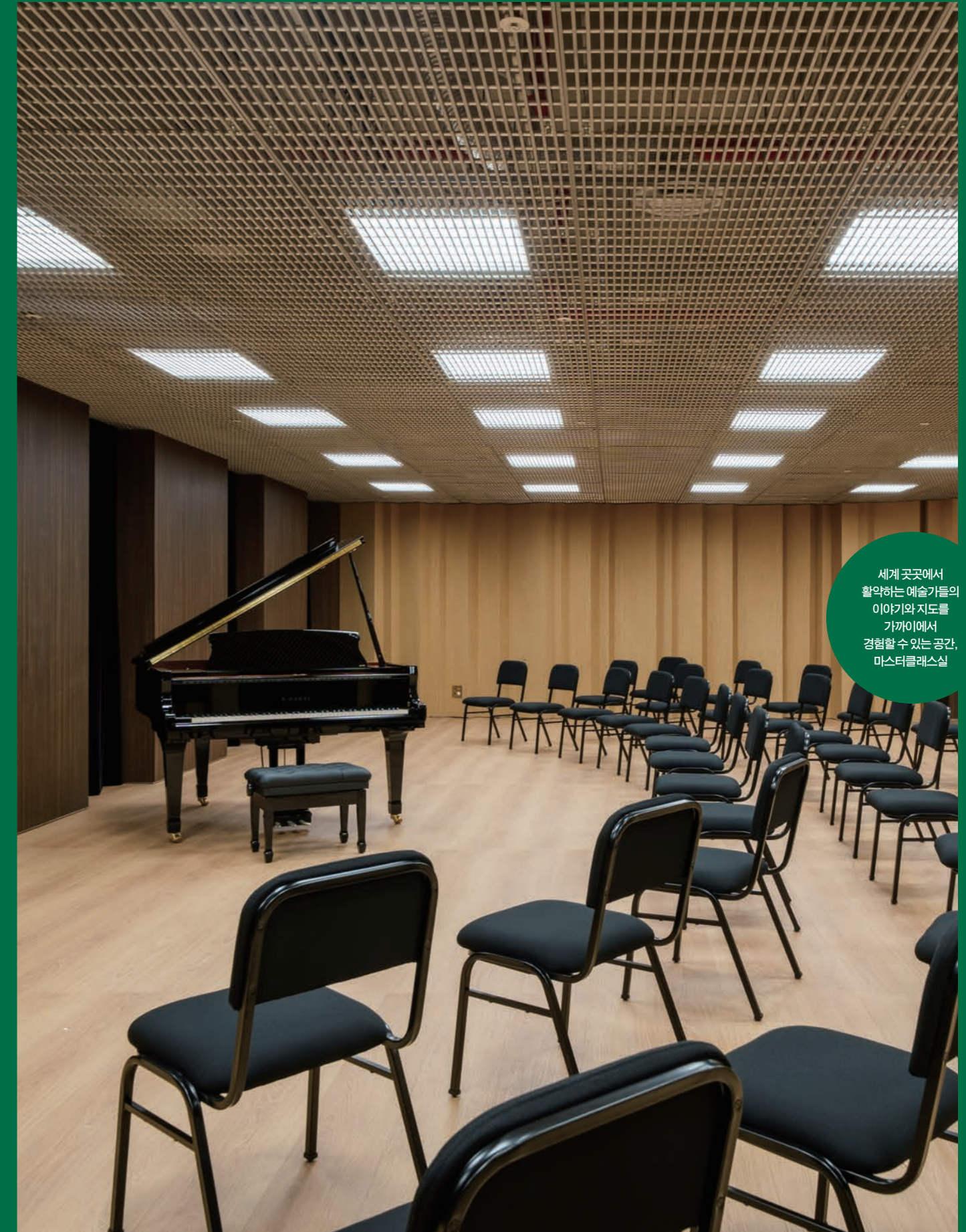


서초 센터 1층 '더 라운지'는 음악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음악 감상과 전시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시민에게 다가간다





다목적 공간
‘예술당술샘’에서 진행된
어린이를 위한
공간 체험형 참여극
〈이상한 동화나라의
어린이 합창단〉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예술가들의
이야기와 지도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마스터클래스실



연습을 위한 지하1층 '예술지음',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1층 '예술도담', 워크숍을 위한 2층과 3층의 '움직임창작실'



대규모 연습과 행사가 열리는 '뮤직스튜디오', 전용 공연장 '서울제임버홀', 그리고 합주와 음감회가 이뤄지는 '앙상블실'





대망의 강북 센터
개관식이 열리는 날,
서울어린이취타대를
지도하는
이상준 예술감독



공기의 분자, 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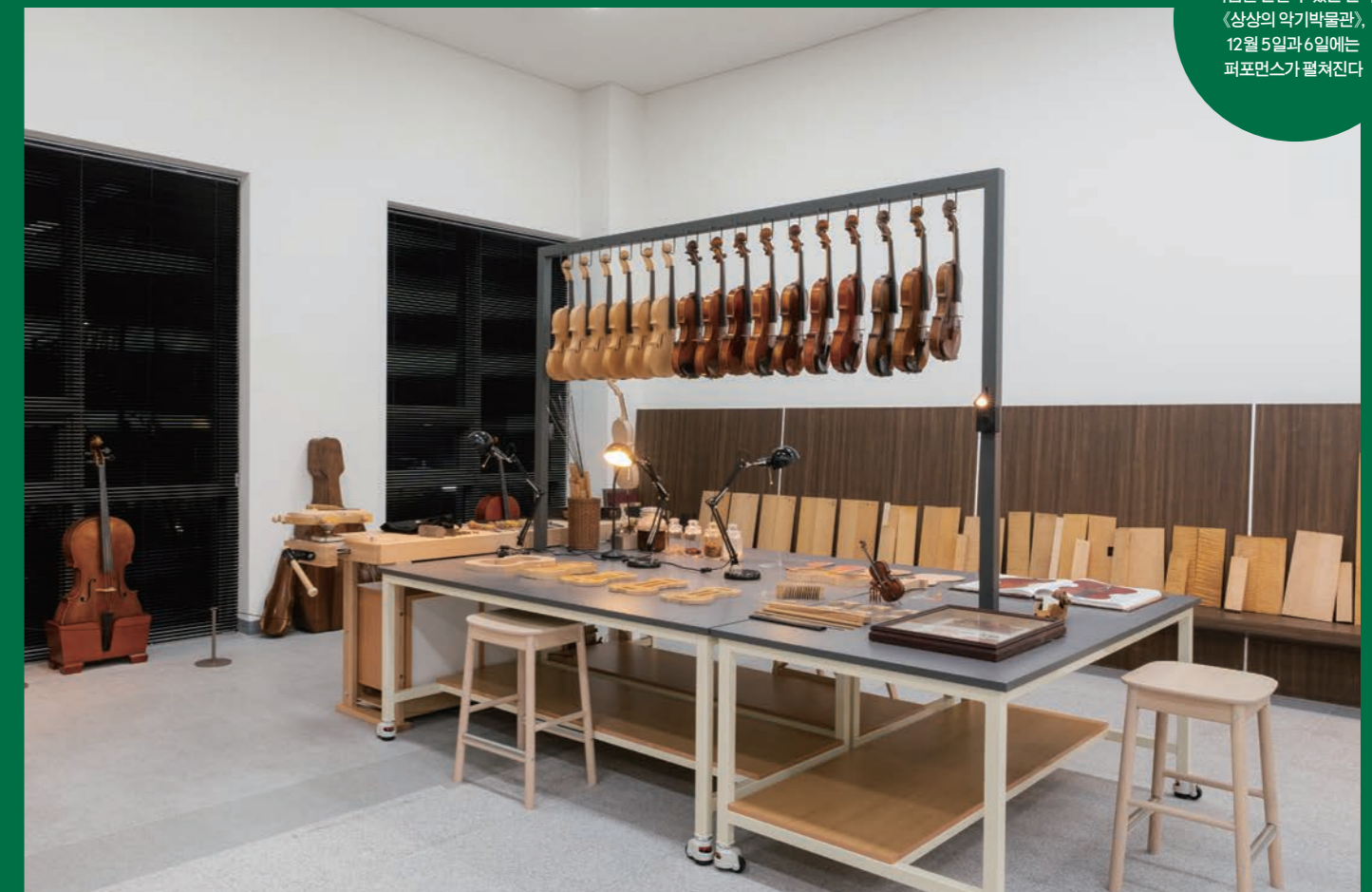
프랑스 사운드 아티스트
해미 클레멘세비츠의
워크숍 '상상의
소리 조각'은
일상의 소리를 새롭게
인식해보기를 제안한다



강북 센터의 얼굴,
서울어린이취타대의
입장 모습



우리가 사랑한 악기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
〈상상의 악기박물관〉,
12월 5일과 6일에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개관식 사회를 맡은 국악인 남상일은 특유의 재치 넘치는 재담으로 현장에 자리한 모두를 즐겁게 했다



서울제임버홀에서 열린 첫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첼리스트 양성원,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가 함께하는 피아노 3중주가 울려 퍼졌다



ASSOCIATED

예술가의 진심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운의 악보밖 세계

예술인 아카이브
허겸

이지혜

페이퍼로그-연말 특집
서울문화재단 출근록 대탐구

인사이드

서울희곡상 수상자 하수민
온라인 플랫폼 '예술로 자브로'

트렌드

여성 지휘자는 아직, 여성 작곡가의 작품이라도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의

악보 밖
세계





대책 없이 멋진 음악가들이 있다. 무대에서는 순간부터 묘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들. 연주 시작 전부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무대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은 필자에게 그런 음악가였다. 그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을 때였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카를 닐센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더욱 주목받았다. 그리고 1년 후, 독일의 명문 악단인 베를린 슈타츠크펠레[Staatskapelle Berlin]의 악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문만 무성하던 그의 무대를 제대로 감상한 것은 2020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이후였다. '칼단발'에 청색 실크 슈트를 입고 무대에 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지윤은 날카로운 보잉 테크닉과 깔끔한 음색으로 독보적인 연주를 들려줬고, 그 순간부터 필자의 마음속에 범접할 수 없는 오라^{aura}를 지닌 연주자로 남았다.

그를 떠올리면 또 한 편의 영화가 생각이 난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참가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의 8일간 여정을 다룬 영화 <파이널리스트 Imposed Piece> 2019다. 감독 브레히트 판후나커[Brecht Vanhoenacker]는 2015년 콩쿠르를 밀착 취재했고, 당시 이지윤도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콩쿠르의 우승자는 따로 있었지만, 판후나커 감독은 유독 이지윤에게 시선을 두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마음을 울리는 이지윤의 진솔한 인터뷰도 담겼다.

"감독님과 저는 파이널리스트 12명 중에서도 유독 코드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화가 잘 이어졌고, 그래서인지 저를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어요. 마지막 인터뷰는 콩쿠르가 끝난 지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따로 녹음했는데, 감독님이 직접 제가 사는 베를린으로 오셔서 영화를 보여주셨죠. 그때의 감정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영화를 두세 번 더 봤어요. 한국 개봉 당시에도 영화관에서 당시의 심정이 고스란히 떠올라 울컥하더라고요. 지금은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만, 언젠가 그때가 문득 생각나면 또 한 번 보게 될 것 같아요."

악보에 몰두한, 부단히 기본기를 다져온 시간

어린 시절, 이지윤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덕분에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 성장했다. 어머니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모두 배우게 했지만, 활동적인 성격의 이지윤에게는 바이올린이 잘 맞았다. 그는 "한 곳에 앉아 연주해야 하는 피아노보다는, 이방 저방을 걸으며 연습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 더 맘에 들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예원학교 재학 중이던 15세 나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에 영재로 입학해 김남윤·김정현 교수를 사사했다. 그때까지 스스로 특별한 재능을 느끼지 못했던 이지윤은 한예종에 들어가면서 재능을 깨달았다. 특히 실내악 수업에서 모두가 똑같이 악보를 읽기 시작해도, 자신이 곡을 익히는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걸 알아차린 것. 그리고 20세 나이에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다.

"실은 미국이 더 친근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미국에서 공부하셨고요. 독일은 언어와 문화가 낯설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콜라 블라히[Kolja Blacher] 선생님도 독일에 계셨죠."

그가 독일을 유학지로 선택한 것은 콜라 블라히의 영향이 컸다. 우연히 블라히가 연주하는 베토벤 '로망스' 영상을 봤는데, 소리부터 해석까지 모두 그간 상상해온 이상적인 연주라 인상에 남았다고 한다. 이후 블라히가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입학 오디션을 위해 비행기표를 끊었다. 그는 아직도 블라히와의 첫 레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90분의 레슨을 위해 총 6곡을 준비했지만, 그는 그 시간 동안 바흐 소나타 단 세 마디만 연주하고 나왔다.

"충격의 도가니였죠. 한국 교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블라히 선생님이 제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보통 레슨에서는 제가 질문하는 쪽이었는데, 독일에서는 제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또, 선생님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2013년 오이스트라흐 콩쿠르에서 우승한 다음 날이었어요. 레슨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축하의 말도 없이 스케일부터 들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철저하고 엄격한 분이세요.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초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6년 내내 강조하셨습니다."



↑ 악장으로서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과의견을 나누는 이지윤

오는 12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이지윤의 마스터클래스를 만날 수 있다. 그는 현재 모교인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도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 이지윤은 지금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어릴 적 자신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압박감이 시달리며 무대를 쫓던 20대 초반의 위태로운 나날이.

“한국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괜한 압박을 많이 받으며 연주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저 자신에게 그런 압박을 준 게 미안하기도 해요. 독일은 확실히 그런 게 덜하죠. 하지만 제가 만난 유럽 친구들을 보면, 약간 한국적인 정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한국적인 교육과 유럽적인 시스템이 섞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 한국에선 모든 것이 밸런스의 문제니까요.”

악보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가 낯선 콩쿠르에서 승전보를 전할 때, 필자는 그가 단연 솔리스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주요 콩쿠르에 입상하면 보통 독주자로 경력을 쌓는 것이 정성이니까. 그런데 이지윤은 곧이어 오케스트라 입단 소식을 들려줘 꽤 놀란 기억이 난다. 그는 콩쿠르에 열심히 출전한 이유에 대해 “유럽 무대에서의 무대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콩쿠르는 초등학교 때부터 매년 몇 번씩 나간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제 의사로 참가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죠. 20대에 들어서면서 욕심이 생기고 제 의지로 출전하기 시작했어요.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유럽 무대에서 발돋움하려면 콩쿠르가 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했죠. 요즘은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예전보다 많이 생겼지만, 제가 한창 콩쿠르에 나갈 때는 입상해서 매거진에 소식이 크게 실리지 않으면 이슈 되기가 힘들었어요.”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참가했을 때였다. 그 시기에 학생 신분으로 베르비에 페스티벌 같은 큰 음악제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고, 그곳에서 동경하던 연주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그동안 상상해온 솔리스트와 많이 달라 당혹스러웠던 것.

“페스티벌에서 만난 일류 연주자들은 제가 상상한 모습과 아주 달랐어요. 해외를 돌아다니며 활동하느라 집에 간 지 너무 오래됐고, 가족들을 본 지도 한참 됐다고 하더군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한 독주자도 사실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연히 오케스트라 오디션 공고를 접하게 되면서 베를린 슈타츠크펠레에 입단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 안정감 있는 환경이 중요하니까요. 원하는 걸 얻은 셈이죠.”

45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베를린 슈타츠크펠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베를린 슈타츠크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오페라를 포함해 통상적으로 1년에 약 200회 이상 공연을 진행한다. 199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임지휘자로 함께한 다니엘 바렌보임 Daniel Barenboim은 베를린 슈타츠크펠레를 세계 최정상 악단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지윤은 바렌보임의 눈에 띄어 이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의 ‘동양인 최초’, ‘여성 최초’, ‘역대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달고 종신 악장에 임명됐다.

“바렌보임에 관한 이야기라면 끝도 없이 계속할 수 있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건, 오디션이 끝난 후 저에게 따로 얘기하자고 하신 거예요. 사무실로 가는 길에 제 악기를 들어 주시기도 했죠. 그와 처음 가까이 애 있어서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바렌보임의 눈동자가 파란색인데, 그 눈빛은 마치 10대 소년 같았어요.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반짝이는 그런 느낌이었죠.”

베를린 슈타츠크펠레는 보통 오전 10시 반에 리허설을 시작한다. 극장에서 15분 거리에 거주하는 이지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 보잉 체크를 하고 연습에 임한다. 낮에는 모교인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공연을 위해 극장으로 향한다. 개인 시간이 생기면 연습실에서 자신과 악기, 둘만의 시간에 오롯이 몰두한다.

“오케스트라 악장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더십에 있어서는 악장과 솔리스트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가 25세였는데, 솔리스트 커리어를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시간을 쪼개서 독주 공연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를 하다가 개인 연습 시간이 생기면 즐기면서 하는 편입니다. 저는 여전히 달려가는 중이죠.”

지금은 악단과 독주자 생활을 병행하며 그토록 원하던 안락한 삶을 보내고 있지만, 그에게도 직장에서 생존을 위해 고심하던 시절이 있었다.

“나라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악단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보니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하는지를

↓ 지난 3월 피에타리 임키넨 지휘 KBS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 교향악축제 무대 © 예술의전당



많이 고민했죠. 음악적으로는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단원들이 모두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처음부터 많이 도와주셨고요. 제가 여성이고 어리다고 해서 차별받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직장을) 편하게 다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만의 음색 찾기, 그리고 그 소리를 전하기

얼마 전, 이지윤이 자신이 몸담은 베를린 슈타츠크펠레에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았다. 그 사이 그의

연주는 많이 변해 있었다. 악장으로 다년간 일해온 덕분일까. 오케스트라에 스며드는 소리가 온화했고,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노련함이 도드라졌다.

“독일적인 사운드는 무게감이 있는 소리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두껍고 어두운 소리가 나는 거죠. 날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남아 있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차분함이죠. 베를린 슈타츠크펠레는 450년의 역사를 쌓아왔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소리를 내려고 했다고 단원들이 저에게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이지윤은 악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꾸준히 한국을 찾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4년 만에 국내 리사이틀을 열었다. 당시 그는 바그너와 슈만·브람스·R. 슈트라우스 등 독일 정통 레퍼토리로 무대를 꾸몄다. 현지에서 그가 쌓아온 시간을 가능할 수 있는 자리였다.

“독일 오페라극장에서 일하면서 소리에 관한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많이 연주해보고, 제일 편하게 느끼는 작곡가들을 모아서 선보였어요. 오페라극장에서 특히 성악가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곳에서 〈토스카〉나 〈마술피리〉같은 고전적인 레퍼토리는 거의 매년 반복하거든요. 악보를 안 보고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외우고 있죠. 늘 다른 가수들과 함께하는데, 모두 다른 색깔을 내요. 개별 가수가 루바토 Rubato를 어떻게 하는지, 끝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지 등을 관찰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 연주에도 반영하려고 해요.”

소리에 관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은 그는 이번 마스터클래스에서는 학생들에게 “테크닉뿐만 아니라 악보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악보 위에 써진 음표만 잘 지키며 연주하는데,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써 있지 않은 걸 보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허겸

시각예술/회화

b.1999

@gyeomheo4

2024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4기

입주작가

“저는 평면 회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시 원경을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예술의전당 미술영재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결과물을 전시하면서 작가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화실 선생님의 권유로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고, 지역에서 장애와

비장애 작가들이 함께하는 청년 예술가 모임에 참여하면서 단체전을 하거나 책을 출판하는 등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가셔야 ‘예술’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제가 많고 크리틱도 많은 편이라 힘들었고 가끔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림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와 제 장애와 예술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표현한 작업을 많이 하면서 제 장애가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장애인으로서 저의 경험을 어떻게 사회적 의미와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또한 소수라는 점에서 ‘타자’인 제가 직접 ‘타자’의 이야기를 다룰 때 거리를 두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점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런 고민으로 인해 제가 성장하고,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스로 예술가로 여겨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도시 원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산책과 높은 데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도시 안과는 다르게 조화롭고 평화롭게 보이는 것이 비현실적이면서도 위안을 주는 느낌입니다. 또한 제가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면 다양한 형태의 색과 면이 하나의 거대한 풍경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나의 구조물로서 건물을 표현했는데, 건물을 블록처럼 쌓고 서로 이어 붙이듯이 붓으로 경계선을 다시 칠해 희미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도시 연작은 기본적으로 형태에만 집중해 흐릿한 원경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장소나 날씨,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작 중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서울 No.9 (Before Sunset)〉입니다. 해지기 직전 저녁 햇살을 받은 건물이 반사하는 다양한 색상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생각을 잊을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형태보다는 색에 더 집중해 그렸고, 그래서 다른 작품들보다 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걸으면서 보는 풍경들이 소재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도 높은 데 올라가서 본 풍경을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마주하는 풍경 중에는 눈길을 끄는 것들도 있고, 일상적인 광경인데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들이 서로 몸을 대고 앉아 있는 지하철 안이라든지요. 그런 순간 그림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제 작품 〈춤추는 사람〉도 실제로 보았던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올해 초에 모두예술극장에서 신기술기반 장애예술 창작실험실 〈Future Wide Open〉 쇼케이스를 봤는데, 흥미로웠습니다. 기술이 장애예술에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떠나 기술

← 〈춤추는 사람〉, 2021, 캔버스에 아크릴, 72.7×60.6cm



융합을 통해 새로운 작업이 탄생하는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장애의 경우 기술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발달장애 예술가의 경우에는 기술과 만나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어떻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발달장애 예술가와의 협업 과정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당분간 도시를 계속 그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거리를 두고 도시의 원경을 그려왔지만, 앞으로는 도시 안에서 그 모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기법이나 재료 면에서는 지금까지 그려온 도시의 원경과 비슷하게 진행하겠지만 도시 안에서 제가 느끼는, 그리고 어쩌면 다른 이들도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이야기를 풍경을 통해 표현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표현하는 것이 저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하며 작업하려고 합니다.”

↑ 〈서울 No.9 (Before Sunset)〉, 2024, 캔버스에 유채, 80.3×116.8cm
→ 〈서울 No.3 (Fog)〉, 2023, 캔버스에 아크릴, 33.4×24.2cm



이지혜

연극/연출, 프로덕션 무대감독
@24_blank_hamlet
2024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
〈____blank 햄릿〉
2019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퍼포논문 〈셀프-리서치그래피〉

↓ 〈안티고네, 나는 영웅이 아니다〉(2023) ©이종은



“ 연극 창작자 이지혜입니다. 연극을 만드는 일만큼 보는 일 역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 년 중 대부분을 극장에서 머무는 편입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출 작업을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연이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

“ 스스로 ‘예술 창작’이라고 할 만한 활동은 2019년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퍼포논문 〈셀프-리서치그래피〉를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해당 기획 프로그램의 취지가 연극 분야의 창작자이면서 학위논문이 있는 사람의 논문에서 출발하는 공연이다보니 공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논문에 바탕을 둔 작업이라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 돌아켜보면, 당시 작업이 제가 이해하고 좋아하는 연극의 순간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한 처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작업을 창작 활동으로서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 개인적으로 예술가는 스스로 말하기보다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가라고 확정해서 자각하기보다는 ‘예술가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건가?’ 하고 느낀 순간이 생각납니다. 2023년 본격적인 연출 작업을 시작한 계기이기도 한데요. 당시 그리스비극 중 하나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재창작한 〈안티고네, 나는 영웅이 아니다〉²⁰²³를 기획하면서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닿을지 궁금하다, 그런

생각들이 곧 예술가로 향해가는 출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요즘은 12월 4일부터 청년예술청SAPY 그레이룸에서 공연할 연극 〈____blank 햄릿〉을 연습 중입니다. 2023년 공연한 〈안티고네, 나는 영웅이 아니다〉와 비슷하게 고전 희곡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다시 쓰고자 시도한 작품입니다. 처음 공연을 기획했던 2023년 연말만 해도 또 고전을 다루는 것이니만 궁금한 일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2024년에 여러 〈햄릿〉이 공연되는 걸 보면서 역시 이야기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 역시 원작을 토대로 새롭게 쓴 이야기입니다. 원작이 ‘햄릿’이라는 인물의 복수와 고뇌, 비극적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____blank 햄릿〉은 모든 사건을 ‘목적’하고 살아남은 사람



↑ 삼일로창고극장 퍼포논문 〈셀프-리서치그래피〉(2019) ©박태양

호레이쇼를 통해 ‘죽음 이후’에 대해 고민합니다. 오늘날 고전 희곡을 무대화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지금의 나’에게 의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왕자로서 고민하고 죽음을 맞는 햄릿보다는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전달하고, 애도하는 호레이쇼가 오늘날의 관객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햄릿의 죽음 이후 10년이 흐른 뒤를 배경으로 호레이쇼가 자신이 경험한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죽음’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고전 희곡에 대한 애정보다는 현실에 너무나 많은 죽음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가 여기저기서 계속되는 죽음(들)을 마주하면서, 살아 있다는 건 결국 지나간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애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충분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 사는 이야기를 창작하는 이상, 한 번은 마주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 2024년의 저는 연극을 통해 ‘인간’에 관해 고민했습니다. 인상적인 사건이나 치밀하게 구성된 흥미진진한 갈등 같은 것도 좋지만, 결국 그 가운데 어떤 인간이 있는지를 훨씬 더 궁금해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일상에서 사람 만나기를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희곡이나 소설·드라마·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면서 작업에 필요한 감각을 만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더 알고 싶은 인간을 만나면 그때 작업을 고민하게 되는 거 같아요. ”

“ 몇 달 전에 본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공공 화장실 청소부 히라야마(아쿠쇼코지 분)의 일상을 담은 영화인데요. 한 사람의 일상을 가만히 따라가는 이야기 자체도 좋지만, 극 중 히라야마라는 인물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일부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삶에 다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그만한 다정함을 얻게 되기까지 얼마나 복잡하고 지난한 삶이었을까 하는 상상이 가능했던 덕분이겠지만요. ”

“ 특별히 모난 데 없는 인간이 무언가를 지나치게 사랑하지도 않지만, 대단히 미워하지도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인간이 나오는 연극이 과연 재미있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어쩌면 연극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리 작은 순간도 극장이나 무대, 관객을 만나면서 ‘다른 순간’으로 변하니까요. 다만 제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존 희곡은 사건이나 갈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다보니, 그런 이야기를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소설을 많이 살펴보는 중입니다. 빼곡한 글자들 틈에서 사소하고 귀여운 순간들을 찾아서 장면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서울문화재단 출근룩 대탐구 다만 패션에 진심인



- Question
- ① 간단 자기 소개
 - ② 평소 어떻게 지내세요?
 - ③ 오늘의 출근룩을 소개한다면,
 - ④ 서울문화재단 자랑
 - ⑤ 하고 싶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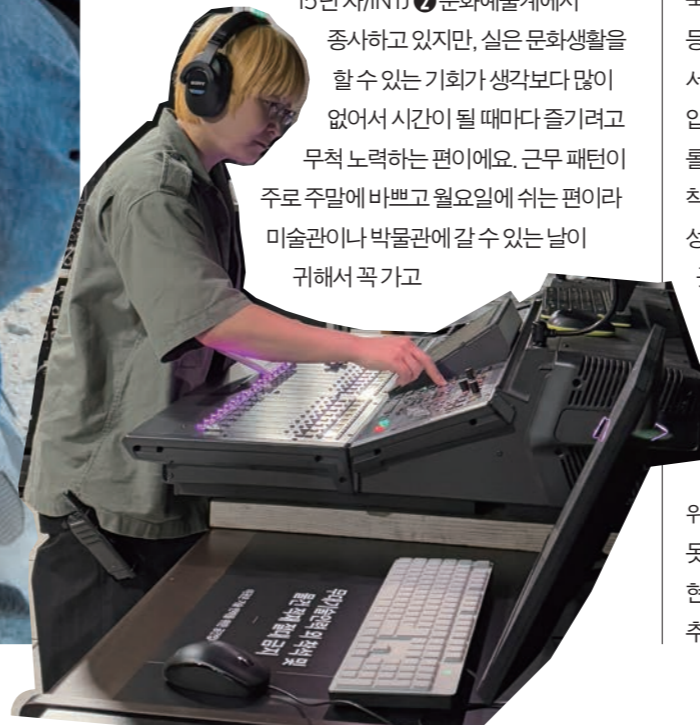


곽혜리나

① 융합예술팀/언폴드엑스사업/5년 차/ ENTP ② 평소에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걸 좋아해서, 분위기 좋은 카페나 공간을 찾아다닙니다. 특히 프렌치토스트를 좋아해 프렌치토스트 카페 목록을 따로 지도에 저장해둘 정도예요! 아이템은 작년부터 스카프에 빠져 예쁜 스카프를 모으는 데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③ “출근룩 이렇게 입을 수 있는 회사, 여기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도 ‘출근할 때 이렇게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입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입고 출근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다보니 다른 직장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운 복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프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간절기에 매치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④ 뭐니뭐니 해도 문화예술계와 맞닿아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주 바쁘고 힘들지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기획하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삶이 다채로워지는 걸 느껴요! ⑤ 이번 촬영과 전시 오픈이 겹쳐서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요.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재밌는 기획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소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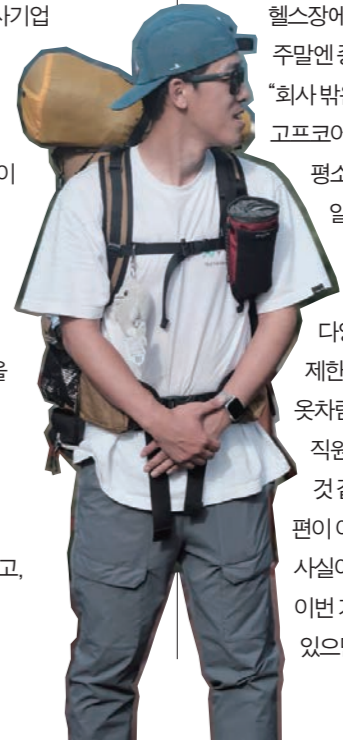
① 노들섬사업팀/노들섬 내용향 업무/업계 경력 15년 차/INTJ ② 문화예술계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실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즐기려고 무척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무 패턴이 주로 주말에 바쁘고 월요일에 쉬는 편이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갈 수 있는 날이 귀해서 꼭 가고



싶은 전시나 체험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다 보니 문화소외계층이네요... (웃음) ③ “블랙은 공연장의 불문율입니다.” 공연장에서 근무할 때 검은 옷을 착용하는 건 현장 스태프들에게 전 세계 공통 규칙이나 다름없기에 옷장에 검은 옷이 제일 많아요. 하하. ④ 그동안 국공립 공연장, 다른 여러 재단, 사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서울문화재단은 좋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에요. 롤모델이 돼주는 선배님들, 마음이 착착 맞는 동료들, 무럭무럭 성장해나갈 후배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제가 일하는 큰 즐거움이자 서울문화재단을 이끄는 힘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⑤ 촬영을 진행하면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근무하며 자주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뵈 수 있어서 좋았고, 현장도 화기애애해서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김영규

① 예술지원정책팀/서울예술상 운영, 예술지원시스템SCAS 개선 업무/13년 차/ENFP ② 평소 회사 밖을 나서면 회사 일은 되도록 잊을 수 있는 환경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평일엔 주로 헬스장에 가고, 최근 몇 년간 캠핑에 빠져서 주말엔 종종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③ “회사 밖은 캠핑룩입니다.” 일상에서도 고프코어룩을 많이 입는 편이고, 그래서 평소에도 많이 튀지 않고 편안한 일상복을 입고 다닙니다. ④ 재단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문화예술 분야다보니 생각의 방식도 다양하고, 그에 맞춰 패션도 자유롭고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옷차림이나 평소 회사 생활에서도 재단 직원 개개인의 특성이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⑤ 사실 평소 옷을 잘 입는 편이 아니라 촬영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재밌게 해 보고 싶었어요. 이번 기회로 우리 재단을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서울문화재단 파이팅!



김영지

1 홍보마케팅팀/연론홍보/N년차/ENFP 2 입사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2주간 휴가(여행)를 떠나고 있어요. 이것이 제 삶의 원동력이며, 그 순간을 위해 1년을 살고 있습니다. 3 "무색무취에도 색이 있습니다." 외부 관계자를 만날 일이 많은 업무 특성상 무색무취를 선호하며, 비교적 단정하게 입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광화문 인근에서 미팅이 있어서 도심 속 직장인에게 끌리지 않기 위해 가를 색인 버건디 컬러 스커트와 스웨이드 부티슈로 깔롱 부려보았습니다.

4 심성이 착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회사 분위기가 대부분 좋으며, 일단 시작하면 사소한 일이어도 묵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콘텐츠처럼요.(웃음) 5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홍보마케팅팀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많은 분들과, 흔쾌히 참여하고 응원해주시는 재단 직원분들께 홍보팀 전원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저는 즐거운 연말 보낼게요~



있습니다. 하지만 부츠만으로도 이미 '꾸!'이기 때문 예상·하의는 최대한 튀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4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와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다는 점! 5 처음엔 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중 무언가를 내보인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획을 통해 다른 공간, 팀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취향을 공유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김주현

1 문화향유팀/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1년 차/INFJ 2 평소 집순이라서 집에서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조용히 숨어 있는 작은 카페나 공간들을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일단 집에 있으면 그냥 다 좋 or.. 3 "미니멀을 추구합니다." '출근룩'으로는 주로 미니멀한 분위기의 옷을 추구하는데요. 그러나 가끔은 꾸미고 싶을 때가 있는 법! 그럴 때 페미닌한 무드를 살릴 수 있는 부츠를 애용하고



남궁태운

1 청년예술팀/청년예술인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운영/5년 차/ESTJ 2 평소 전시 보고 떡볶이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ESTJ라서 쉬는 것도 꽤나 전투적으로 임하는 편인데요. 거의 매 주말 문화예술 행사로 스케줄을 채우고 있습니다. 남이 기획한 행사(고통이자 고뇌)를 보는 건 늘 짜릿해요. 3 "힘주는 포인트는 한 가지지만" 웃을 입을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입으려 해요. 소재가 포인트이거나 컬러가 포인트거나 패턴이 포인트거나! 4 서울문화재단은 적당한 개인주의와 동료애를 갖추고 있어 아주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동료·선배·상사·남어딘가에 전부 걸쳐 있는, 그래서 매우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일할 때 내 의견을 내는 게 두렵지 않은 구조랄까요? (틀린 게 있나요, 다른 거지! ESTJ로서 의견 차이 환영, 빠른 수용 가능) 5 서울문화재단 (정말로) 복장 규정 없어서 너무 좋아요.



윤동주

1 축제기획2팀/서울서커스페스티벌·서울거리예술축제 공연 및 홍보 업무/5년 차/INFJ 2 저는 평소에 운동과 독서를 즐겨합니다. 최근엔 배수아 작가의 소설을 찾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진 못하지만, 요즘 요리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평범한 요리보다 내 입맛에 맞춰 새롭게 만들 때가 재밌더라고요. 마라 파스타라든가, 당근 튀김이라든가... 나 홀로 <흑백요리사>를 찍으면서 놓입니다. 3 "편안한 무드를 추구합니다." 화려하거나 불편한 착장은 피하면서도 단정하게 갖춰 입는 느낌이나는 출근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을·겨울이 되면 품이 넉넉한 울 니트를 즐겨 입어요. 4 담당 부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를 위해 평일 낮 시간대에 공연이나 전시를 볼 수 있는 것! 5 여러분, 축제 좋아하세요?



양은상

1 경영기획팀/기관 경영평가 담당, 창의혁신 경영 제도 운영, 기관 경영혁신 운영 등/5년 차/ESTJ 2 평소 취미는 운동이에요. 실내 사이클·러닝 등을 병행해 기급적 매일 운동하는 편입니다. 1990~2000년대 초반 국내 R&B (앤썸·브라운아이즈 등), 힙합 (TEAM·원타임 등)을 운동 중에 즐겨 듣습니다. 애착 아이템은 그리 많지 않지만, 클래식한 시계(봄·여름 스틸과 가을·겨울 레더)를 좋아합니다. (스마트 시계 지양!) 3 "가을엔 셔츠와 스웨터를!" 가을에는 셔츠와 스웨터를 즐겨 입는 편입니다. 스웨터와 셔츠 손목 부분 레이어드는 3.5센티미터 정도 각을 유지하는 걸 좋아하고, 스웨터→셔츠→클래식한 시계까지 삼위일체(3단 레이어드)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 때는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4 문화재단 전 직원의 전사적 노력으로 2024년 서울시 경영평가 결과에서 출연기관 중 상위권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재단 설립 이후 약 8년 만에 최우수 등급을 다시 달성했습니다. 5 행복하세요~

표선정

1 인사팀/연봉 산정과 명예퇴직 등 담당/4년 차/ESTJ 2 운동을 2년 반 전부터 시작했는데,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게 돼 지금은 운동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등산부터 시작해서 F45라는 운동을 하다가 1년 전부터는 러닝도 함께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요즘은 '카더원'과 '공정왕 김땅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3 "운동복도 패션입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근육 움직임이 잘 보이는 옷을 입으려고 해요. 매일 운동을 하다보니 이젠 운동복이 옷장 두 칸을 차지할 만큼 많아졌지만, 어느 스포츠 브랜드든 세일을 하면 늘 저도 모르게 살펴보고 있네요. 4 아무래도 문화재단이다 보니 늘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가까이할 수 있는 점이



좋아요! 요즘은 너무 정보가 많으니 오히려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회사의 문화예술 행사 일정을 보고, 제 취향에 맞게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5 주말에 뭐 할까, 퇴근하고 뭐 할까, 고민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서울문화재단 인스타그램 채널 또는 누리집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맞는 행사를 골라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함께 즐겨요♥



다양한 문화예술계 소식과 재밌는 콘텐츠가 가득한 서울문화재단 인스타그램 (@sfac2004)으로 놀러오세요!

마주 본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서울희곡상 수상자 하수민

지난 11월 8일, 서울문화재단은 제2회 서울희곡상 수상작으로 하수민 작가의 '엔드 월-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를 선정했다. 응모 자격과 소재,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이번 공모에 미발표 창작희곡 158편이 접수됐다. 수상자는 상금 2천만 원을 받게 되며, 작품은 향후 대학로극장 퀴드 제작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하수민 작가 겸 연출가는 <슈미>2021, <새들의 무덤>2020, <떠돌 3부작 - Good day Today, 무라, 찰칵>2014-20, <육쌍둥이>2014 등을 극작·연출했다.

'엔드 월-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로 제2회 서울희곡상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새들의 무덤>으로 서울연극제 대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2024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저는 연극을 늦게 시작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년 평균 세 작품씩 공연했어요. 그런 과정에 있다보니 수상 소식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상이 앞으로 제게 어떻게 소화가 될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엔드 월'은 산업재해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요? 2021년에 벌어진 평택항 산재 사망 사고를 간단하게만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다' 정도로요. 20대 때는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였는지 어느 순간 그 사건에서 제 20대가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저도 위험한 장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보니 관련한 내용을 리서치하게 됐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파고 들어가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군요. 시스템도 문제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간 그 친구의 꿈은 무엇이였을까를 상상하며 써 내려갔습니다.

<육쌍둥이>에서 용산 참사를, <새들의 무덤>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뤘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이야기할 때면 비당사자인 창작자의 태도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경계했나요? 사회 문제에서 모티프를 갖고 작품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작품을 보는 모두가 모티프가 된 사건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유가족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불안한 부분이 있죠. 한번은 <새들의 무덤>에 극단 노란리본 분들을 모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공연을 보고 모두 우실 줄 알았는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곤





서로에게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참사를 잊을 수 없지만, 유가족 대부분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당사자인 우리가 참사가 일어난 그 시점에 머물러 있으면서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 맞게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고귀해 보였어요. 그때 알았죠. 작품으로서 예의는 갖춰야 하지만, 과감하게 알려야 할 부분은 더 얘기해야 한다는 것ですよ. 그래서 <새들의 무덤> 초연에서는 유가족인 오루가 딸을 기억하기 위해 바다에 갔다면, 2024년 공연에서는 오루가 극장에 일하러 왔다가 불현듯 기억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수정했어요.

평택항 사고의 경우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외에도 쓰고 연출한 많은 작품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극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가, 제가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 호숫가 근처에 살았는데 그때의 저는 어딘가에 고정되거나 안정돼 있지 않았어요. 불안하고 두려웠던 요소들도 있고... 20대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 떠돌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의 떠도는 감각이 자연스레 작품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결국 집, '홈home'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싶다는 욕망도 내재하고 있나 봐요. 저에게 가족은 해결되지 못한 숙제 같아요. '엔드 월'에는 다른 산재 사고를 겪은 아성과 무명이 등장하는데, 아성은 아버지와 친밀한 사이지만 무명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떠돌고 싶은 마음과 다시 잘 융합해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자꾸 가족 이야기가 작품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정착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정착하게 될까요? 죽겠죠.(웃음) 저에게는 연극을 만드는 것도 기쁨이지만, 떠도는 것 역시 연극 못지않은 기쁨이어서 계속 떠돌 것 같습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영화 미술 작업을 오래 하다 늦게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연극을 하기로 결심하게 했나요? 동시대적 감각이요. 저는 살면서 '동시대'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공간 연출'이 중요했는데, 2005년에 그리스 연출가 미하일 마르마리노스(Mikhail Marmarinos)의 <아가멤논>을 보고 한 대 맞은 거죠.(웃음) 살아 있는 인간이 객석에도 무대에도 있다는

점에서, 연극이 동시대의 최전선에 있는 예술로 느껴졌어요. 이후 미하일 마르마리노스의 <애국가>²⁰¹⁷에 참여하게 됐고, 다큐멘터리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동시대성을 탑재하고 있다보니 멋있고 재밌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희곡 쓰기를 배운 게 아니라 제 식대로 쓰다 보니 2014년에 처음 쓴 '육쌍둥이'는 다들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당시 공연에 출연한 강애심 선배님은 사람이 좋아서 했지, 글만 보면 (작품에 출연) 안 했을 거라고 하시거든요.(웃음) 지금 보면 이걸 어떻게 썼나 싶지만, 객관적이지 않고 자기 색깔이 분명한 작품이라 좀 사랑스럽기도 해요. 저는 완성이 아닌, 계속 동시대에 반응하는 작품을 하기를 원해요. 지금에 반응하는 작품이 동시대에 반응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엔드 월'을 막 끝냈을 때 제가 조금 확장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쁘더라고요.

공간 연출에 관한 감각은 희곡을 쓰고 연출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나요? 희곡을 문학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공연을 위한 스크립트로 여겨요. '엔드 월'도 연습실에 가면 모두 해체될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간과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영화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세트를 세울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시각적인 예민함이 있다 보니 연출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리에요. 시각적으로 비어 있어도 소리가 채워지면 공간과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요. 특히 연극은 배우가 핵심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가진 소리와 태도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엔드 월'에 수없이 반복되는 "쿵"이라는 단어도 연출가로서의 방향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작품을 준비하며 실제 평택항에 가봤어요. 계속 쿵쿵대는 소리가 들려요. 과연 이 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저 담담하게 받아낼 뿐이지... 그럼에도 사람들은 노동하고 있다는 게 제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동시대성을 깃발 삼아 10여 년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동시대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나요? 어떤 주제나 형식으로서의 동시대성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에게 동시대성은 살아 있음의 확인 같아요. 연극이 동시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객석과 무대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요. 무대는 허구고 아래는 현실이지만, 서로 마주 본다는 건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한다는 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예요. 마주 보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동시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길 위에서 벌어지는 '떠돌이 시리즈', 현대사의 비극을 담은 '현대 시리즈'로 하수민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이후의 작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앞으로는 제가 감각하는 공간성과 희곡의 언어를 잘 섞어보고 싶어요. 12월에 공연할 설치 연극 <Don't Take Me Home: 나를 집에 데려가자마>(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예술인지원센터 프로젝트룸)가 소박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공간에 영화의 영상과 사운드, 난민 활동가의 말, 오브제가 있어요. 관객에게 어떤 극이라기보다는 설치물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요. 퍼포먼스도 설치될 수 있으니까요. 아직은 텍스트 위주의 연극이 많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시작했고 재미를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저만의 연극 만들기를 다시 꺼내려고 해요. 다른 감각으로 동시대를 전달하는 연극을 하고 싶어요.

올해의 숨은 극작가 찾기, 서울희곡상

2023년 시작을 알린 서울희곡상은 우수한 창작희곡을 발굴해 연극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극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기회다. 서울희곡상은 지원작 중 1편을 선정, 극작가에게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하고 작품은 대학로극장 퀴드의 제작 시스템을 거쳐 무대에 오르게 된다. 타 공모에 당선되거나 발표되지 않은 창작희곡이라면 어떤 작품이든 응모할 수 있다. 원고와 작품 개요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전문가 서류 심의와 토론 심의를 거쳐 당선작을 발표한다. 우수한 희곡을 시상하는 것만 아니라 프로덕션 과정을 염두에 두기에 희곡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무대화 가능성과 제작 실현성 등을 함께 검토한다. 2023년 서울희곡상에 178편의 후보작이 몰렸고, 2024년 두 번째 공모 역시 158편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공모 기간을 45일 연장해 더 많은 이들이 문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꾸준히 동시대와 호흡하는 창작희곡을 발굴하고자 나아갈 계획이다.

제1회 수상작 | 이실론 '베를리너'
제2회 수상작 | 하수민 '엔드 월(End Wall)-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문화예술 일거리 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예술로 자브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언제든, 어디서든 얻을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쏟아진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맞춤형 정보만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일거리(경제 활동) 또한 마찬가지다.

일거리는 다양하고 많다. 하지만 예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뛰어난 만한 일거리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라 다를없어 보인다. 규모가 있는 기업이나 기관·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문화예술교육이나 행사 진행에 최적인 예술인을 찾는 일은, 빠른 데이터 값을 원하는 조직사회에선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이 자신의 창작 활동과 연계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예술로 자브로 Art JOBRO'(sfac.or.kr/sasc)를 공개한다.

'예술로 자브로'는 예술인이 전문 분야 및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문화예술계와 접점을 이루며 일할 기회와 영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인 중심'의 양방향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업·기관·협회·단체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예술인(개인·단체)의 정보를 플랫폼에 축적한다. 그리고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일거리와 협업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매개한다. 공급자인 기업·기관·협회·단체에는 예술인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예술인의 다양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PR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인 예술인에게는 예술 분야의 협업 및 일거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기관·협회·단체의 구인 정보를 한눈에 보여줘 플랫폼에서 서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예술로 자브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계해 문화예술계 내 일거리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력을 발전시키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팝업! 예술로 자브로'

온라인 플랫폼 론칭과 동시에 예술인 및 기업·기관·협회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네트워킹을 위한 예술인 일거리 오프라인 행사 '팝업! 예술로 자브로'가 개최된다. 12월 5일과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2층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개인·

단체)과 예술인을 원하는 기업·기관·협회·단체 등이 참여한다. 기업·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과 예술인에 관한 강연 및 컨설팅을 통해 참여 예술인에게 일거리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참여 기업·기관·단체에 역량을 보여주는 예술인 20여 명(팀)의 피칭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프로그램은 '예술가 PR 부스', '숏-팅 부스', '기업 강연 및 예술가 피칭', '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 크게 네 섹션으로 구분된다. '기업 강연 프로그램'에서는 아모레퍼시픽재단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접목한 기업과 예술인의 협업 사례를 들려줄 예정이다. 사회 혁신 뉴스를 전하는 중앙일보 공익 섹션 '더버터'는 사회 변화 트렌드를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소개함으로써 기업 및 기관과 일거리를 연결하는 노하우를 전달한다.



이밖에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예술인과 협업할 수 있는 일거리 관련 질의응답을 나누는 '숏-팅(Short-Meeting (짧지만 알차고 쓸모 있는 전문가와의 일대일 미팅) 부스'를 운영한다. 예술인이 전문 분야 외에 자신의 영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영감과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공모를 통해 '팝업! 예술로 자브로'에 선정된 예술인은 피칭과 자기 홍보 기회를 얻게 된다. 행사에 참여한 여러 기업·기관·협회·단체, 그리고 동료 예술인에게 약 8분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피칭을 진행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것. 이를 통해 일거리 정보뿐만 아니라 참여자간 활발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외에 신당창작아케이드 15기 입주작가와의 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문채민·소혜정 도예 작가가 본인의 예술 활동에서 확장된 워크숍 형태의 작업으로 킴링 만들기, 모빌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신당창작아케이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한다. 홍보 부스를 제외한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현장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넘쳐나는 일거리 정보 속에서 어찌면 서로의 접점을 찾고 있었을지 모를 예술인과 기업·기관·단체 담당자들이 '팝업! 예술로 자브로'를 통해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예술로 자브로'가 문화예술계에서 예술인에게 공신력 있는 일거리 길잡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여성 지휘자는 아직, 여성 작곡가의 작품이라도

매년 1월 1일, 화려한 황금 홀과 생화 장식에 둘러싸여 왈츠를 즐기는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 이 음악회는 1939년 12월 31일 시작된 이래 신년음악회 문화를 펴뜨렸고, 지금까지도 매년 전 세계로 실황이 송출된다. 신년음악회를 기다리는 이들의 관심사는 단연 '지휘자'다. 빈 필은 상임지휘자를 두지 않는 대신 매년 지휘자를 초청해 연주한다. 신년음악회의 지휘자 또한 매년 다르게 초청하는데, 큰 행사인 만큼 선임이 까다롭다. 9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단 19명의 지휘자밖에 오르지 못했을 정도. 이 중요한 자리에 누가 설까? 매년 서로 다른

↑ 황금빛 연주 홀과 생화 장식으로 유명한 빈 필 신년음악회 풍경 ©Wiener Philharmoniker/Dieter Nagl
→ 처음으로 빈 필의 정기 연주회를 지휘할 여성 지휘자 미르가 그라지니테틸라 ©Andreas Hechenberger

기대와 추측이 오간다. 그러나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누가 지휘자가 되느냐보다 더 큰 화두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휘자의 성별이다.

“여성 지휘자는 언제쯤 신년음악회를 지휘합니까?”

신년음악회 기자회견에선 매년 한 질문이 반복된다. 여성 지휘자는 언제쯤입니까. 근 몇 년 여성 지휘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주요 오케스트라의 상임직을 맡는 여성 지휘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기대감이 빈 필에도 미치고, 특히 빈 필의 상징인 신년음악회에 역사적인 '최초'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올 기자회견에 또다시 같은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2025년 신년음악회 지휘자도 남성이라는 뜻. 선임된 지휘자는 리카르도 무티Riccardo Muti다. 지휘자 선임 기준으로 오케스트라와의 협력을 우선하는 빈 필엔 흠잡을 데 없다. 무티는



빈 필과 1971년 처음 호흡을 맞춘 이래 50년 이상 협력해왔으며, 신년음악회도 이미 6번이나 지휘한 경력이 있으니. 다만 거장 무티라도 새로운 세대가 원하는 '여성 지휘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왜 빈 필에 유독 여성 지휘자에 대한 압력이 높은 것일까. 이는 빈 필의 오랜 여성 음악가 차별 전력에서 비롯한다. 빈 필은 악단 고유의 미학과 음색을 고수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상임지휘자를 두지 않는 것도 악단의 성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이다. 빈 필의 이러한 정체성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 유지되는데, 그 전통에 남성 중심의 사회적 가치가 자리한다. 빈 필은 역사적으로 회원 전원이 남성이었던 빈 음악협회와 밀접한 관계였다. 여성 단원은 1997년에야 처음으로 입단이 '허용'됐다. 여성이 정기 연주회를 지휘한 최초의 사례는 놀랍게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창단 183년 만인 2025년 5월 성사될 예정이다. 지휘자는 미르가 그라지니테틸라Mirga Gražinytė-Tylė, 베를린 필 1923년(에바 브루넬리Eva Brunelli), 뉴욕 필 1938년(안토니아 브리코Antonia Brico, 모두 정규 프로그램 전체 지휘 기준)과 같은 기록에 빗대면 빈 필의 빛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다.

남성 지휘자만 초대되는 이유는?

2022년 빈 필의 자치회장 다니엘 프로샤우어Daniel Froschauer는 정책상 신년음악회에는 빈 필과 최소 10년 이상 협력한 지휘자만 초대할 수 있다고 했다. 빈 필은 앞서 언급한 그라지니테틸라 외에 2022년 요아나 말비츠Joana Mallwitz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빈 필을 지휘한 바 있다. 이제 막 여성 지휘자와 협업이 시작된 셈이다. 그렇다면 신년음악회에서 이들을 볼 가능성은 최소 2032년 이후일까?

2023년 1월 신년음악회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질문이 나오자, 빈 필 대표단은 “때가 되면 여성 지휘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프랑스 '디아파중' 지는 (질문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회견장에 충격을 주었다고 묘사했다. 한순간에 전통을 바꿀 수 없는 악단의 입장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동안 많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십사리 이들의 보수적인 노선을 바꾸기 어려운 건, 이러한 보수성이 그동안 이들이 '음악색'을 지켜온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몇 년 사이 조금씩 변화가 있다. 2023년 신년음악회엔 소년합창단만 오르던 전통이 깨지고, 이들과 같은 단복을 입은 소녀들이 함께 무대에 섰다. 2024년엔 신년음악회 최초로 악장 자리에 여성(알베나 다나일로바Albena Danailova, 2011년 입단)이 앉았다. 2025년엔 여성 지휘자는 오르지 않지만, 대신 최초로 여성 작곡가의 작품이 편성된다. 콘스탄체 가이거Constanze Geiger, 1836-1890가 작곡한 '페르디난두스 왈츠Ferdinandus-Walzer'다.

빈 필은 지난 10월, 2025년 신년음악회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가 메인이지만, 세계의 이목은 콘스탄체 가이거에게 쏠렸다. 그는 누구인가.

콘스탄체 가이거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가수·배우였다. 작곡가 아버지에게 조기 교육을 받은 뒤 6세에 피아니스트, 9세에 작곡가로 데뷔한 신동이다. 주로 피아노와 성악을 위한 소품을 썼고, 왈츠는 “효과가 풍부한 선율, 화려한 음색과 엄격한 행진 리듬”이라는 평을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빈 필을 지휘한 요아나 말비츠 ©Ludwig Olah

받았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25세에 결혼하며 끝이 난다. 남편 레오폴트 왕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사촌인 왕족으로, 가이거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성에서 남작부인으로 살았다.

부부는 슈트라우스와 가까운 사이였다. '여성 음악가'를 원하는 세상에 여전히 슈트라우스 중심, 남성 지휘자라는 답을 내놓아야 하는 빈 필에, 가이거와 슈트라우스의 친분은 이번 200주년 기념 음악회에 '여성 작곡가'의 작품이 오를 당위성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찍 음악 생활을 그만둔 가이거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래서 더욱 빈 필의 이후 행보를 눈여겨 봐야 한다. 가이거의 작품이 단지 신년음악회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도구일 것인가, 진정으로 여성 작곡가의 작품을 알리고 연구하는 시발점이 될 것인가. 글을 쓰는 내내 본질적인 질문이 맴돈다. '여성'이 지휘대에 오르든, '여성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든, 여성의 존재가 연주회에 포함되는 일이 이토록 화제가 될 만큼 이들에게 성별이 중요한 사안일까.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공연물품,
사지 말고 빌려 쓰세요.

re: stage seoul



온라인 플랫폼
www.restageseoul.or.kr

오프라인 플랫폼

• 의상·소품창고: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8 서울연극창작센터 6층
• 대도구창고: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43

☎ 02.758.1677
✉ restage@sfac.or.kr
📍 [restageseoul](https://www.instagram.com/restageseoul)

COULD WE READ THE MINDS

스크린 너머의 세상
삶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이강소 화백의 바람이 물을 스칠 때
삶의 책장을 넘기며
뒤죽박죽 서울 사투리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무엇이 아름다운가
동시대적 고전 읽기
한껏 낭비해야 달게 되는 세계

illust ©slowrecipe



삶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이다혜 작가, 씨네21 기자

“대부분의 여행기는 작가가 겪은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오는 그런 여행기가 있다면 나는 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소설가 김영하는 『여행의 이유』(2019)에 이렇게 썼다. 그렇다면 여행기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 김영하는 이어 적었다. “그것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거의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여행만을 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출발과 도착 예정 시간을 포함해 어떤 식당에서 어느 정도 줄을 서서 어떤 메뉴를 먹어야 ‘실패’하지 않을지 속속들이 알 수 있다. 무엇을 볼지도 사전에 예습하고 간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엉뚱한’ 전시실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 최적의 경로로 봐야 할 유물이나 작품을 빼놓지 않고 체크한다. 우연이라는 것은, 21세기의 여행자들이 큰맘 먹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모험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삶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다. 원하지 않았던 우연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모험으로 내몰린다. 긍정적인



방식으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영화 <6번 칸>(Compartment No.6) 2023의 주인공은 핀란드 유학생인 라우라다. 라우라는 모스크바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는데, 모스크바를 떠나 무르만스크에 암각화를 보러 갈 계획을 세운다. 일행도 정해져 있다. 대학의 문학 교수이자 연인인 이리나가 암각화를 보고 싶어 한 것이다. <6번 칸>의 도입부는 어느 집에서 열린 작은 파티를 담는다. 문장을 누군가가 말하면 그 문장이 어느 작가의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인지 맞추는 놀이 중이다. 그야말로 이것은 취향의 공동체.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끼리, 비슷한 취향을 지닌 사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이리나는 그 모임의 중심에서 맹활약하지만 라우라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든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한 듯한, 애매한 표정을 짓고 문간에서 있다. 라우라의 세계는 이리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런데 이리나가 여행을 함께 가지 못하게 된다. 라우라는 혼자 떠난다.

이리나가 없이 떠나는 여행, 라우라는 시종일관 무표정하다.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낯설기 때문이다. 승무원이 여권을 검사하러 기차의 침대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라우라와 같은 칸에 탄 남자가 반쯤 빈 술병을 꺼내는 모습을 본다. 그는 곧 술을 툭툭 따라 마시는데 와중에 술이 입가로 줄줄 흘러내린다. 라우라는 남자를 피해 식당칸에 피신하지만, 영원히 그럴 순 없다. 밤이 되어 자기 위해 다시 자기의 침대칸으로 돌아가 보니 남자는 이미 거나하게 취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리고 그는, 쉬지 않고 말한다. 이리나의 파티에서

사람들이 문학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과시적으로 이야기했던 광경을 떠올리면 좁은 침대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쉬지 않고 내뱉는 말은 극과 극의 경험이 된다. “기차는 왜 탔어? 몸 팔러 가?”라고 무례한 질문을 던진 남자는, 라우라의 아랫도리를 만지며 재차 질문하고 라우라는 탈출을 시도한다. 라우라는 기차 승무원에게 돈을 찢러주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이것은 망한 여행이다. 목적지에 가기도 전부터 망했다는 생각만 든다. 옮길 자리가 보이지 않자 라우라는 다시 자기 침대칸으로 돌아간다. 남자는 잠들어 있다.

<비포 선라이즈>를 기억하는 (나아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6번 칸>은 신선한 충격을 안긴다. <비포 선라이즈>가 유럽 기차 여행에 대한 낭만을 증폭시켰다면,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과의 로맨스에 대한 공상을 부추겼다면, <6번 칸>은 지극히 현실적인 1인 여행자의 비애를 다루는 듯하다. 로맨스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목적지까지 무탈히 가기만을 바란 여행자가 대화는커녕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과 한 칸에서 버텨야 되었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라우라는 중간 기차지에서 내려 모스크바로 돌아가려고 이리나에게 전화를 걸지만, 이리나는 옆에 있는 누구와의 대화에 정신이 팔려서는 “살마 벌써 돌아오려는 건 아니지”라고 췌기를 박는다. 라우라는 거기에 상황을 설명할 자신이 없고, 다시 침대칸으로 돌아간다.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은 침대칸을 쓰며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6번 칸>의 악몽은 거기 있지만, 희망 역시 거기 있다.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자신과 비슷한 계급 혹은 성별, 성적 지향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 갑작스레 무작위 추첨된 것처럼 모든 면에서 상극인 사람과 3일 밤낮을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날은 악몽처럼 끝나버리고, 둘째 날은 그 악몽에 익숙해지는 듯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어진다.

<6번 칸>은 관객이 남자, 료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료하는 라우라만큼이나 관객이 적대적 선입견을 갖도록 행동하는 인물로 보이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그의 사람됨을 알게 된다. 그는 ‘다르게’ 살아온 사람일 뿐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 여행자가 여행 중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시도하지 않던 것을 시도하며 목적지를 향해 우당탕탕 나아가는 것. 예상했던 모든 경로에서 이탈한 것 같지만 끝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 마침내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은 사랑도 로맨스도 우정도 아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된다. 문학 교수인 이리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암각화를 보러 가고자 했던 라우라의 목표는 여러 난관에 부딪치면서 시험당한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했던 여정에서 라우라가 찾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실패와 우연이 줄 수 있는 가장 기막힌 성취를 <6번 칸>은 보여준다. 낯선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게 만드는 영화.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이강소 화백의 바람이 물을 스칠 때

박현주 뉴시스 미술전문기자

“현대미술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여야 한다.” 이강소 화백은 국내 화단에서 다 장르를 섭렵한 한국 현대미술 거장이다. 단색화나 조각, 한 가지에만 몰입한 작가가 아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실험미술 작업을 하던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설치·퍼포먼스·사진·비디오·판화·회화·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쳐왔다. 일명 ‘오리작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이렇게 규정되는 것을 거부했다. “오리도도 보이겠지만 나는 무책임하게 붓질의 획, 흐름을 힘 있게 표현한 그림”이라며 “작품을 보는 분이 나름대로 (오리) 환상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10여 년 전 단색화 열풍으로 화단에서 자신을 단색화가 카테고리에 묶었을 때도 “난 단색화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나 개인의 주장보다는 자유롭게 조화를 찾으려 할 뿐”이라면서 ‘단색화의 쏠림 현상’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1975년 프랑스 파리 청년 비엔날레, 1977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여하며 ‘글로벌한 감각’을 새긴 그는 틀을 거부하며 계속 전진했다. 현재 여든을 넘긴 나이지만 오스트리아 기반의 세계적 갤러리인 타데우스 로팍(Thaddaeus

Ropac과 지난 9월 전속 계약을 맺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관이나 감성을 중시하는 작품 경향을 보이는 그의 50여 년 작업 세계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작가들의 꿈의 전시장,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강소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대규모 전시가 열린다. 설치·조각·회화·비디오·이벤트 등 장르를 넘나든 100여 점을 선보인다. 객관적 세계와 재현된 이미지에 대한 다층적 해석을 실험하는 개념미술로 늙지 않고 낡지 않은 이강소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거친 붓선으로 그린 사슴(〈무제-911193〉)이 압도한다. 세로 2미터, 가로 3미터 대형 캔버스에 그려진 사슴은 ‘렌티큘러’ 같은 움직임이 느껴진다. 여러 각도에서 본 사슴의 모습이 중첩되어 마치 입체주의적 회화나 피카소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사슴은 전통적으로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동물로 묘사되지만, 사슴의 고유한 의미나 형태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회화성에 관한 자신의 탐구를 이러한 도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단일한 주체는 없으며 존재는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화백의 철학을 회화적 실험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실험성과 거친 붓의 운용을 통해 회화적 기교를 보여준다. 동양 철학과 양자역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그의, 모든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철학적인 그림이다.

사슴은 이미 50년 전 시작됐다. 1975년 파리 청년 비엔날레에 ‘닭 퍼포먼스’와

함께 출품된 ‘무제’ 설치 작업은 그의 독특한 사슴 작업의 시발점이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사슴 뼈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이다. 당시 서문시장에서는 사슴 뼈를 약재로 사용하거나 닭을 직접 잡아 파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장면은 작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 뼈를 구입하여 나무 합판 위에 분필로 그린 세 마리의 사슴 드로잉 위에 흰색·은색·검은색으로 칠한 뼈를 배치하며 사슴의 형상을 재구성했다.

이 작업은 생명체의 실존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흔적과 잔형을 통해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남겨진 뼈와 드로잉을 통한 은유적 표현은, 인간과 존재의 유동성에 대한 작가의 깊은 탐구를 반영한다.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 작품들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후 그의 대표작 오리와 사슴 회화로 이어졌다.

이번 전시 제목은 ‘풍래수면시(風來水面時)다. ‘바람이 물을 스칠 때’라는 뜻으로, 새로운 세계와 마주침으로써 깨달음을 얻은 의식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송나라 성리학자 소옹의 시 ‘청야음(淸夜吟)’에서 따왔다. 회화와 조각·설치·판화·영상·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지 방식을 질문하고 시각에 관한 개념적인 실험을 지속해온 작가의 예술세계를 함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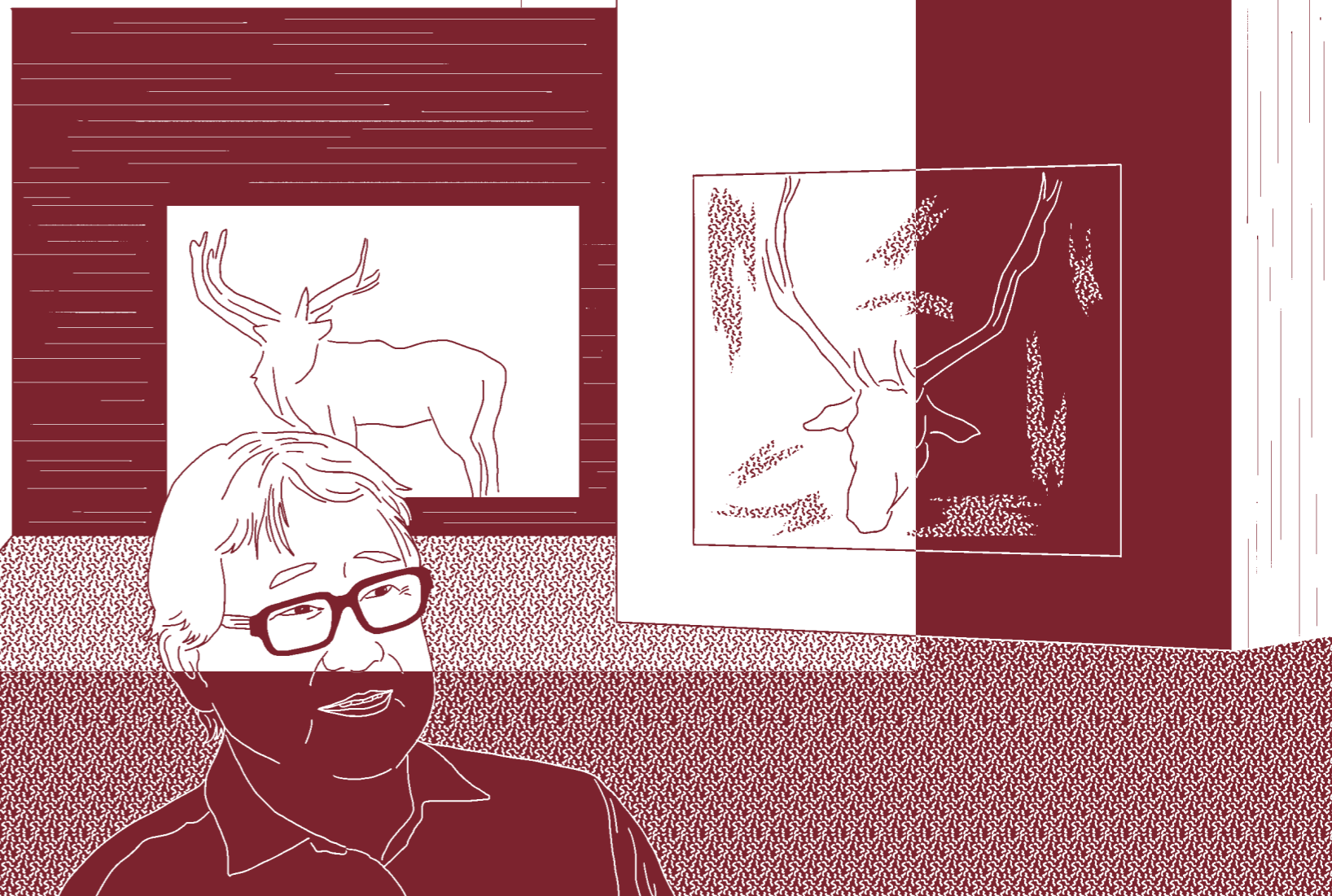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대상의 속성과 이미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을 인식하여 창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배제한 그리기

실험을 지속해왔다. 1980년대 초 추상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 집·배·오리·사슴 등 구상을 거쳐, 1990년대 이후 추상과 구상을 오가며 상상적 실재를 이야기했고, 이는 2000년대 이후 글자와 추상의 경계를 교묘하게 이용한 작업 시리즈로 지속됐다. 작업 초기부터 현실을 인식하는 이미지에 대해 의심한 그는, 동일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일한 이미지와 오브제조차도 관람자의 경험, 공간, 시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지는 회화’, ‘만들어지는 조각’을 지향하는 이강소 화백은 “완전히 표현을 안 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표현을 아낀다”고 했다. 우연과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혼재될수록 관객은 자연스럽게 자기 경험을 떠올리고 상상하며 작품을 보게 된다는 것. “사람은 각자 자신이 인식한 세상 속에서 가상의 시공간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회화와 설치 작품의 자율성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시각적 재현을 넘어,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흐름을 회화 속에서 형상화하는 한국적 현대미술에 천착하고 있는 그는 “남은 시간을 국제적으로 교류하며 열심히 작업하겠다”고 했다. 붓, 자연, 정신, 그리고 몸이 하나로 융합되어 나온 ‘이강소 작품’이 말한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하며 순환한다’는 것을.





꾸미

뒤죽박죽 서울 사투리

손정승 『아무튼, 드림』 저자

서울 토박이가 쓰는 말,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의 말, 스스로가 서울 사람이라고 믿고 쓰는 말. 모두가 서울말이다. 그것이 표준어와 같고 다르고는 중요하지 않다. 서울의 향기가 나는 말, 서울의 역사가 담긴 말, 서울에서 가장 먼저 쓰이기 시작했을 듯한 말 모두가 서울말이다.

『서울의 말들』, 10쪽

오래된 서울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와 현재의 서울과 비교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좋아한다. 대학생 때도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을 몹시 좋아했던 걸 보면 갑자기 생긴 취향은 아닌 듯하다.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곳의 예전 모습과 그곳을 부지런히 걷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문득 우리 동네의 오늘도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먼 훗날 이 영상은 '21세기 초 서울 마포구 영상. 촬영자 미상' 정도로 돌아다닐 수 있겠지. 촬영자는 몰라도 연대는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의 나는 느끼지 못하는 분명한 표식이 있을 테다. 지금의 내가 예전 영상 속 '서울 사투리'를 단박에 발견하는 걸 보면 말이다.

『서울의 말들』2024이 나왔다. 유유출판사에서 꾸준히 출간하고 있는 '말들 시리즈'에서 드디어 사투리를 다룬 것이다. 서울과 충청이 나왔고, 곧 전라와 경상이 나올 예정이란 다. '말들 시리즈'는 영화나 책·다큐·예능 프로그램, 일상에서 특정 주제에 맞는 문장 100개를 찾아 그에 관한 저자의 단상을 담아내는 책이다. 이번 시리즈는 다양한 정서를 품은 우리네 말이 자꾸만 사라지는 게 아쉬워서, 각 지역과 연고가 있는 저자들이 사투리가 들어간 문장을 살뜰히 그러모아 우리 언어문화의 다양성을 살피고 자기 기획했다고 한다. 사투리 관련 책은 워낙 나오지 않는 편이고, 나왔더라도 아주 오래전 일이라 기획 의도가 몹시 반가웠다. 그런데도 『서울의 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서울에도 사투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순간 놀랐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표준어는 서울말을 기반으로 정해졌고, 그렇기에 서울말이 방언의 한 종류라고 의식할 수 있는 순간은 몹시 드무니까.

책은 내가 인터넷으로 획획 넘겨 보던 예전 서울 사진을 공들여 읽는 과정이었다. 재밌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의 말들』에 수록된 문장 대부분의 출처는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가 주를 이룬다. 이 시기는 전국 각지에서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서울로, 서울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기 직전이다. 만나질 생활권인 지금보다 교류가 훨씬 적던 때이기에 서울 특유의 말씨와 단어가 유독 생생했다. 그래서인지 100개 문장을 읽으면서 자주 깜짝 놀랐다. 문장 전체를 읽어도 뜻이 가늠조차 안 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있고 산 단어도 있고, 또 어떤 단어는 너무 곱고 예뻐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빨래말미'라는 단어를 아시는가? 여름철 지루하게 계속되던 장마 속에 날이 잠깐 들어서 옷을 빨아 말릴 만한 겨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 한 꾸미 주세요'라던 말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꾸미'는 국이나 찌개에 넣는 약간의 고기불이를 뜻하는데, 고기가 너무 귀해 이 정도 양을 사고파는 시절이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신기료장수'는 어땠고, "신기우려~"라고 외치며 신을 입고 고쳐주던 이가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도 신발을 고치지 않고 신다 버리니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린 말이다.

고쳐야 할 대상이 사라졌으니 고치는 사람이 사라지고 뒤이어 말까지 사라졌다.

『서울의 말들』, 65쪽

'동그랑땡은 동그랑땡이지!'라며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는데, 1969년 기사를 보니 '동그랑땡 사정이 안 좋다'는 말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다. 서울내기 현진건 소설가의 작품에 나오는 '젊으신네' 호칭도 인상 깊다. 서울 특유의 거리감 있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나는 듯해서다.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상투적인 말씨를 썼지만, 말에는 고유한 지문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에도 특정 삶의 지문과 시절의 지문이 계속해서 묻어나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저자는 표준어에서 서울말을 골라내 모으고, 그 골라내는 기준을 세우느라 무척 고생이 많았을 테다. 방언은 어디서 발견하면 방언인

줄 알아챌 수 있는데, 서울말은 여간 쉽잖았을 듯하니 말이다. 그럼에도 집필을 마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감히 짐작건대 단순히 학자로서의 열망만 있지는 않았을 테다.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욕망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저자뿐만 아니라 읽는 우리에게도. 나만 해도 이 독서 행위에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는 좋은 욕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매일 쏟아지는 신간 중에 굳이 『서울의 말들』을 발견하여 낯선 말의 뜻을 고민하고, 말의 억양과 맥락을 세심히 살펴 읽는 일. 무인도에 살았다면 결코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 남자의 편지 속에 있는 '뒤죽박죽'이란 말이 서울말의 매력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그렇게 각지에서 온 여러 사람들의 말이 섞였으니 그것이 표준어가 될 수 있고 그 말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의 말들』, 12쪽

[문화+서울] 4월호 칼럼에서 『서울의 워커홀릭들』을 소개하며 서울은 '가장 화려한 회색 도시'라고 말한 적 있다. 이제는 여러 색깔이 섞이고 섞인 회색이라는 걸 알기에, 이 회색 도시에서 회색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이다. 말도 마찬가지다. 서울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전국 각지의 말들과 그네들의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묻어 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다채로운 회색의 말을 쓰게 될까?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사투리가 억양만 남고 너무나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던 차에 몹시 반가운 책이었다. 다른 지역들의 말맛도 하나씩 차근차근 느끼려 가볼까.

무엇이 아름다운가

김호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막스 리히터Max Richter의 새 앨범 "In A Landscape"의 여섯 번째 트랙 제목은 'Life Study III'다. 누군가의 휘파람 소리, 대화소리, 걷고 있는 듯한 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듯 거리감을 둔 채 울리다 바람 같은 무언가와 함께 뒤엉키며 모호하게 사라진다. 바로 다음 트랙은 'The Poetry of Earth (Geophony)'.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위에 천천히 포개지는 현악기의 선율이 아름다운 자연의 장면들을 너럭하게, 때로는 쓸쓸하게 포착한다. 막스 리히터에게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전형이 된 반복되는 모티프, 어렵지 않은 화성 진행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 같은 음형들이 춤을 춘다. 다시 산업 기제의 소음을 떠올리게 하는 'Life Study IV'라는 새로운 트랙이 연결된다. 앨범의 긴 서사 중 가장 좋아하는 한 대목이다.

이번 앨범은 문학 장르에 비유하자면 자전적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발칸반도의 코소보 분쟁을 다룬 'Memoryhouse' 2002,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는 'The Blue Notebooks' 2004처럼 그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열 곡의 음악 사이사이 아홉 개의 앰비언트 간주곡을 배치한 구성으로 막스 리히터는 새로운 메시지를 드러낸다. 리히터는 파트너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인 율리아 마르와 함께 옥스퍼드셔 지역에 설립한 친환경

스튜디오에서 이 앨범을 작곡하고 녹음했다고 한다. 스튜디오 주변 숲에서 녹음한 소리,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수집한 소리를 뒤섞음으로써, 어쿠스틱 악기와 전자 장치를 한데 가져옴으로써, in a landscape 어떤 풍경으로 들어가지도 하고, inner landscape 내면에 침잠하기도 한다. 일상과 상상을 번갈아 오가며, 삶과 음악 활동 전반에서 주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질문을 상징한다.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 앨범을 한참 들으며, 최근 재개봉한 영화 <타인의 삶> 2007을 우연히 보며 주인공 비즐러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타인의 일상을 들음으로써 변화되는 나, 나를 감화시키는 어떤 예술, 어떤 삶. 비즐러와 나, 그리고 막스 리히터와 드라이만 부부가 겹쳤다.

<타인의 삶>은 2007년 영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5년 전인 1984년경 동독을 배경으로 한다. 국가 정책에 헌신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둔 채 단조롭고 건조한 일상을 꾸리던 비밀경찰 비즐러는 예술가 부부를 감시하는 도청 업무를 맡으며 서서히 변화되어 간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가치 있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 애쓰는 드라이만-크리스타 부부의 삶을 일종의 연극 무대를 관람하듯 몰래 지켜보며 비즐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간다. 촉망받던 대학교수에서 우편물 관리직으로 강등되는 결말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행이지만, 우편물을 실은 작은 수레를 끌고 걷어가는 비즐러의 걸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Max Richter
"In A Landscape"

"In A Landscape"의 11번 트랙 'Late and Soon'은 윌리엄 워즈워스의 1802년 소네트에서 가져온 제목이다.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late and soon/ Getting and spending, we lay waste to our powers; Little we see in Nature that is ours(세속의 일이 너무나 많다, 늦고 또 이르다/벌어들이고 써버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들을 스스로 파괴해 버린다/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연을 거의 보지 못한다)" 산업사회의 물질주의를 한탄하며,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점점 산만해지는 현대인을 떠올렸다고, 리히터는 '애플 뮤직'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다. 이 곡은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Life Study V'와 'Life Study VI'의 트랙 사이에서 하나의 장면처럼 펼쳐졌다 사라진다. 현대의 우리는 거대한 모순을 끌어안은 채 비극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는 일상의 소소함과 소란스러움에 가려 잊히기도 한다. 그 일상에서의 태도가, 그 안에서의 생각들이 아름다운 인간을 만든다.

무엇이 아름다운가. 오디오 매거진 '정희진의 공부'는 영화 <타인의 삶>을 소개하며 이 질문을 던진다. 정희진 편집장은, 이 영화로부터 떠올릴 주요한 질문은 아름다움에 변화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킨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막스 리히터의 앨범을 반복해 재생하며 이 질문을 곱씹는다. "In A Landscape"라는 제목은 존 케이지의 독주곡에서 따온 것이며, 존 케이지에게 영감을 준 것은 에릭 사티다. 바로크 시대 작곡가와

바흐·슈베르트, 초기 미니멀리즘 작곡가로부터 리히터가 떠올린 영감의 조각들을 앨범에서 발견하다 보면, 무엇이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리히터의 오랜 고민을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가 고조되거나 발산되는 법이 없어 긴장이나 이완, 카타르시스 같은 것은 느끼기 어렵지만, 매끈한 질감으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하나의 안온한 공간을 마련하는 앨범이다.

'아름다운 건 나 자신'이라는 메시지가 유행하는 시대에 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함으로써 다음으로 갈 필요가 있다. 새해에는 시간을 들여 스스로 물을 수 있다면 좋겠다. 무엇이 아름다운가.



한껏 낭비해야 달게 되는 세계

전영지 공연 칼럼니스트·드라마티그

폴란드 연출가 예지 그로토프스키Jerzy Grotowski는 한 인터뷰에서 “연출가란 연출 이외의 분야에서 실패한 뒤 연극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이 말은—여느 연극 대사들이 그러하듯—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동원된 그럴듯한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실 연출가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연극 작업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 종종 질문받고, 그런 까닭으로 자기 나름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두곤 하는 듯하다. 특히 프로덕션의 내부 비평가, ‘드라마티그dramaturg’는 연출가나 배우·극작가보다 훨씬 생소한 명칭인지라 더욱 많은 질문에 노출되는 편.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거창한 수사를 동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중 얼버무려 ‘드라마티그’를 시시하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인지라

오래도록 생각해본 결과, 과시도 겸양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연극을 보는 것만큼 연극을 만드는 과정을 즐겨워하는 연구자가 ‘드라마티그’가 된다고.

프로덕션이 주는 기쁨이 무엇이고 하면, 이 또한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나는 무엇보다 ‘발견의 희열’을 꼽고 싶다. 관련 자료를 찾아 읽고, 프로덕션 구성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질문과 해석을 경유하여 희곡을 되짚어 읽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꽤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작품에서조차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 순간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제아무리 큰 기쁨이라 해도 금세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의 일. 손턴 와일더Thornton Wilder의 ‘우리 읍내Our Town’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너무도 빨리 지나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는 일상의 경이인바, 최근 경기도극단의 <우리 읍내>(11월 16일부터 24일까지)에 참여하며 경험한 발견의 기쁨은 휘발되기 전 서둘러 붙잡아 이 지면에 담아 볼까 한다.

‘우리 읍내’는 1938년 초연 이후 전 세계 무대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는 ‘현대의 고전’ 중 하나로, 연극 전공자라면 모르기 어려운 작품이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그로버스 코너스Grover’s Corners라는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20세기 초 그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펼쳐진다. 아침이면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등학교 시간이면 아이들 소리로 온 마을이 소란해지며, 저녁이면 교회 성가대 연습을 하거나 책을 읽고, 밤이 되면 함께 산책하거나 까담없이 설레는 마음에 늦도록 달구경을 하는, 그런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이 ‘우리 읍내’가

그리는 생의 풍경이다. 변화라면, 1막에 함께 등교하고 함께 숙제하던 에밀리와 조지가 그로부터 3년 후인 2막에선 결혼을 하고, 다시 9년 후인 3막에선 그중 한 명이 이른 죽음을 맞이한다는 정도뿐. 하여 ‘우리 읍내’를 소개하는 글에는 으레 ‘평범한 삶과 일상’이라거나 ‘보편적인 삶의 진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곤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평범’이나 ‘보편’은 묘사가 아니라 평가와 배제의 언어다. 무엇을 ‘평범’이나 ‘보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와 다른 모든 것들은 다소 이상하거나 부족한 존재로 낙인되고 마는 것. ‘우리 읍내’의 한 대목을 예로 들면, 가장 비중 있는 등장인물로서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지휘하는 ‘무대감독’은 “결혼이야 대부분 하는 거지만, 우리 읍내에선 정말 예외가 없다”며 “거의 모든 사람이 기혼자로 임종을 맞이한다”고 말한다. 마치 ‘우리 읍내’의 ‘평범’과 ‘보편’은 이성애 범물혼 중심의 ‘정상 가정’뿐이라는 듯 말이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까지 합쳐지면, ‘우리 읍내’가 그리는 ‘평범’과 ‘보편’이란 어찌면 그저 지극히 보수적인 ‘앵글로색슨계 백인 신교도WASP의 이상’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일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의심이 나만의 것은 아니었는지, 극작가이자 예일대학교 교수인 도널드 마굴리스Donald Margulies는 2003년 하퍼 퍼레니얼 모던 클래식스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에서 출판한 『우리 읍내』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손턴 와일더는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현대 대중에게 구시대적 가치를 설교하는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때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앞서 인용한 ‘무대감독’의 대사처럼 당위를 기술하는 듯한 문장들을 따라 읽다 보면 이 작품 전체가 한편의 ‘시대착오적 설교’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허나 등장인물의 말이 언제나 그 인물의 진심인 것은 아닐뿐더러 더더욱 작가의 생각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기실 프로덕션을 준비하며 나는 와일더가 ‘무대감독’이 ‘거의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묘사한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75년 일흔여덟 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와일더는 평생 결혼하지 않은 것. 와일더 본인은 “너무 바빠서 그저 결혼을 건너뛴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가 죽은 후 소설가이자 영문학자이며 타투 아티스트였던 사무엘 스투어드Samuel M. Steward가—와일더가 ‘우리 읍내’를 집필하던 당시—자신이 와일더와 연인 관계였다고 밝히면서, 와일더가 끝내 결혼하지 않은 까닭에 대한 또 하나의 가설이 제기되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무대감독’의 입을 빌려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일’이자 자신이 만든 가상의 마을에서는 ‘더더욱 예외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결혼’에서 정작 와일더 자신은 ‘예외’였다는 점일 터다.

새로운 발견을 마음에 품고 ‘우리 읍내’를 다시 읽으니, 모든 평서문이 의문문으로 다가왔다. 작품 전체가 ‘평범하고 보편적인 삶’ 속에 안온하게 기거할 수 없었던 예술가가 ‘삶과 죽음’에 부친 거대한 물음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작가에 대한 정보 없이도 ‘우리 읍내’는 질문으로 읽힌다. 질문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은 한갓 연극일 뿐’임을

강조하는 ‘극장주의theatricalism’ 형식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대착오적 설교’라는 오해는—극의 마지막 에밀리가 토로하듯—숨 가쁘게 흘러가는 일상속 서로를 바라볼 시간조차 없어 생긴 것일 뿐일지도 모른다. 나 또한 프로덕션에 참여하고서야 선뜻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아까워, 말만을 좇아 읽다 등장인물의 말에 속아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실 말의 외피와 진의 사이의 거리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타자의 세계에 온전히 닿아보겠다는, 이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낭비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이 시대 대중 서사에 내레이션을 빼곡한 것도 그런 마음을 사치스럽다고 여기는 효율성 강박 때문일지도 모른다. 실로 동시대 서사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알고 있다는 듯 독백하고, 독자·관객은 그 말을 고스란히 믿는 듯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든, 목적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거짓이 필요해서든, 진실이나 진심과는 꽤 거리가 먼 애매모호한 말들만을 쏟아내지는 않던가. 말이란 본디 지극히 불투명한 것이 아니던가.

‘우리 읍내’를 읽고 또 읽으며 생각했다. 대부분의 희곡은 입말로 쓰이지만, 희곡이야말로 말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장르라고, 좋은 고전 작품은 참으로 대범하게 그 불투명한 말로 끝내 모를 타자의 세계를 끝끝내 대면하게 한다고. 그리 길지도 않은 텍스트 하나를 한 계절 붙잡고 읽으면서 기꺼이 비효율을 택할 때만 달게 되는 세계가 있다고, 아마도 타자의 세계란 언제나 그러하리라고 되뇌었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이번 호에는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온·오프라인 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월간 [문화+서울]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390명 독자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RESPONSE

“인터뷰 글들이 항상 생생하게 잘 담겨서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입니다. 지금처럼 쪽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요가 완벽히 파악되지 않더라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간 부탁드립니다.” “아날로그적이긴 하나 앞으로도 종이 잡지도 계속 발행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안정적인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갈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보기에 편안한 부분이 있지만 가끔은 MSG가 들어간 아식도 먹고 싶은 것처럼 파격적인 디자인이나 날 것의 이야기가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작은 생각이 듭니다.”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 배우나 스태프들께 직접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기회나, 서울문화재단 프로그램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같은 코너요.” “시민들 참여가 늘면 좋겠어요.”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예술가뿐 아니라 중장년층, 어르신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나 작품 소개를 포함해 폭넓은 독자층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매달 챙겨보고 연필로 한 줄, 한 줄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문화+서울]은 저 개인에게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감성이 흘러 넘치는 ‘문화 오아시스’입니다.”

“[문화+서울]의 콘텐츠는 분명 충실하지만, 깊이와 다양성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정 예술 장르에 치우친 느낌이 있어, 독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AT THE END OF THE SEASON

12월호를 마감하는 11월 25일 저녁. 연희동은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모두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BEHIND THE SCENES

함께 홍보마케팅팀에 발령받은 지 어느덧 1년! 다만 기획에 진심인 은지 대리님을 보며 늘 많은 걸 배웁니다. 새해엔 그녀가 더욱 건강하길 바라며, 우리 우정 FOREVER!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EPILOGUE

매년 연말, 정신차리고 보면 크리스마스와 올해는 12월 1일부터 매일 초콜릿을 찾아 먹으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드벤처 캘린더를 준비했다. 매월 [문화+서울]을 만들다 보니 12개가 채워졌고 또 그렇게 12월이 왔다.

전민정 편집위원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시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노들윈터페스타

2024년 11월 22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노들섬

산타의 노들 공장

